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79호 【루계 제24592호】 주체103(2014)년 6월 28일 (토요일)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위대한 사상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오늘 우리 당은 사상사업에 최대의 의의를 부여하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일대 사상공세를 벌려나가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와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전의 포성을 높이 울려나가는데서 획기적인 리정표로 되였다.

당이 제시한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자!》는 구호가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이 기본이며 사상을 발동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전 력사적로정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확증된 사상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것이다.

1

위대한 사상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위대한 사상은 인민대중에게 운명개척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며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준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혁명투쟁에 서슴없이 나서게 하는것이 바로 혁명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사상의 힘이란 혁명의 원리, 정의와 진리를 깨달은 인민의 단결된 힘이다. 《진리로 뭉쳐진 억센 뜻은 세계 앞서나가리》라는 《애국가》의 구절에도 있듯이 정의로운 인민, 진리로 뭉쳐진 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사상의 견인력과 변혁적힘은 계산해낼수도 가늠할수도 없다. 군사적타격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상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위력은 핵무기보다 더 강하다. 한편의 혁명적인 시와 노래, 영화는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수 있다. 빈터우에서 강국을 세우고 약소민족도 강대한 민족으로 되게 하는것이 사상의 힘이다. 위대한 사상이야말로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는 만능의 무기이며 세계를 움직이는 지레대이다.

현시대는 사상의 위력이 더욱 부각되고있는 시대이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우리 당이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의거하는것은 당의 붉은 사상으로 무장한 혁명인재들이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겠다는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열렬한 애국심,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굽어보며 최첨단과학기술을 탐구하는 불타는 열정, 조국과 인민을 위한 과학연구에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가는 숭고한 희생정신을 지닌 인재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할수 있다는것이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이다. 현실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상적준비정도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혁명의 장구한 력사는 위대한 사상의 위력으로 승리떨쳐온 영광스러운 년대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명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합니다.》

적수공권으로 시작된 우리 혁명에서 유일무이한 무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이였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사상의 힘으로 동지를 얻고 무기도 해결하였으며 사상의 위력으로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고 부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 그 어느 나라 력사에도 우리 혁명에서와 같이 자기의 확고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시작한 혁명, 사상을 투쟁과 변혁의 강력한 힘으로 전환시킨 혁명은 찾아볼수 없다. 주체형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의 기발을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나가는 혁명무력, 일심단결된 전투대오의 위력은 사상이 낳는 위력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사상의 힘으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다.

위대한 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주는 백승의 보검이다.

위대한 사상은 곧 자주의 사상이다.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인민대중에게 자주의 넋을 심어주는 혁명사상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 법이다.

오늘 세계도처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간섭책동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고있다. 그 근원을 따져놓고보면 자주권수호를 위한 옳바른 지도사상이 없는데 있다. 자주권이 있고서야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이 있다. 오늘의 세기야말로 자주적인 혁명사상이 천금보다 더 귀중한 세기이다.

자주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의 근본핵이다. 자주로 일관된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자주성이 강한 인민으로 자라날수 있었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할수 있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여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가 있었기에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강권책동도, 대국주의자들의 압력도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이 땅우에 일떠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걸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자주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는것이다.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근위병이 되느냐 하는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포기했을 자주권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목숨으로 지켜냈다. 이것은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창조한 력사의 기적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자주의 불변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밝혀주고있다. 사상의 힘으로 백승을 떨쳐온 우리 조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자주의 성새로 높이 솟아 빛날것이다.

위대한 사상은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실현하는 강위력한 무기이다.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렬되면 패한다는것은 혁명의 진리이다. 단결에 혁명의 승패가 달려있지만 그것을 실현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의 지향과 뜻으로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위대한 사상이 있을 때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할수 있다.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통이며 천하지대본이다. 백전백승을 창조한 조선혁명의 전 로정은 일심단결의 력사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심단결의 사상으로 살고 일심단결의 기상으로 전진하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승승장구의 한길을 걸어왔다.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제일무기로, 이 세상 그 누가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위대한 혁명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 김혁, 차광수동지들을 비롯한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일심단결의 전통을 마련하였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일심단결은 더욱 공고히 다져졌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는 일심단결의 산모범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혁명사상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대오에서는 령도자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치는 단결의 정신만이 차넘치게 된다는것이 조선혁명의 력사적 총화이다.

오늘 우리 혁명대오는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의 일심단결은 백배천배로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위대한 혁명사상이 꽉 들어찬 우리 혁명대오에서는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그 어떤 분파적인 요소도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위대한 사상이 영원하듯이 우리의 일심단결도 영원하다. 오늘의 강성국가건설투쟁은 백두에서 시작된 일심단결의 력사적진군의 계속이다. 령도자는 천만군민의 행복한 삶을 꽃피워주고 보살피며 인민은 령도자에게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는 위대한 혼연일체, 세계가 부러워하고 인류가 경탄하는 일심단결을 가지고있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위대한 사상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는 원동력이다.

어떤 나라와 민족이든지 그 흥망성쇠의 근저에는 언제나 정신력이 놓여있다. 민족이 발휘하는 정신력을 보면 민족의 전도에 대하여 알수 있다.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와해되고 저조할 때 아무리 큰 령토와 방대한 인구, 막강한 군사, 경제적힘을 가진 나라도 쇠퇴몰락한다는것을 인류력사는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끊임없이 고조시키자면 위대한 사상이 있어야 한다. 위대한 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만이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가지고 혁명투쟁에 떨쳐나설수 있으며 강한 의지력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나갈수 있다. 정신력은 결국 대중의 사상적준비와 각오에 달려있으며 정신력이자 곧 사상의 힘이다.

우리 인민이 지닌 정신력은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에 근본바탕을 두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 민족의 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총대의 귀중함을 새겨주는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에 의하여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이 창조될수 있었다.

나라와 민족마다 자기의 고유한 정신에 대하여 제나름대로 자랑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처럼 위대한 사상에 기초한 숭고한 정신력을 지닌 민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우리 인민은 항일, 항미의 불길속에서 조선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치고 전후 빈터우에서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사면팔방으로 달려드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사생결단의 대결전에서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 나날에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이 지닌 강의한 정신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조선혁명의 승리는 불굴의 정신력의 승리이다. 일찌기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몸이 찢겨 가루가 되더라도 대를 이어가며 싸워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숭고한 지원의 사상을 내놓으시고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가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2천만 조선민족의 힘을 총동원하여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국땅우에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고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우리가 헤쳐가야 할 혁명의 천만리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가장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가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투쟁이 간고할수록 더욱더 분발하여 일떠서고 시련앞에서 주저와 동요를 모르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정신력의 강자들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은 무한대하며 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있기에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는 확정적이다.

2

위대한 사상의 힘은 위대한 계승속에 무궁무진한 생명력을 발휘한다. 혁명위업의 계승은 사상의 계승이다.

오늘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그 절대적진리성과 변혁적위력이 더욱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이것은 주체의 사상론을 튼튼히 틀어쥐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고 의지이며 시대와 력사의 뜻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는 철저한 사상선행, 사상중시, 사상발동의 령도로 일관되여있다. 닭알에도 사상을 새우면 바위를 깨뜨릴수 있다는것이 우리 당이 주장하는 사상론이다. 우리 당이 오늘의 첨예한 정세속에서 최후승리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수 있은것은 사상의 위력, 대중의 정신력을 믿었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조국땅우에서는 인민대중의 사상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일대 사상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백두산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모란봉악단의 노래폭탄이 강산을 진감시키고있다.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마련된 사상사업의 고귀한 전통이 줄기차게 이어지는 속에 천만군민의 정신력이 최대로 분출되고있다. 사상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주체혁명의 전도는 끝없이 밝고 창창한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상론의 견지에서 보고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원칙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다종다양하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상문제에 귀착된다. 사상을 고도로 중시하는데 당의 혁명성이 있고 전투력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상에 의거하여 풀어나가고계신다. 사업의 종자도 방법론도 사상에서 찾고 그 성과여부도 대중의 사상상태를 기본으로 보고 평가하라는것이 우리 당의 일관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어느 단위를 찾으시여도 혁명사적비와 혁명사적관을 먼저 돌아보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는데 성공의 열쇠가 있다고 간곡하게 가르쳐주고계신다. 창조물의 높이를 보기에 앞서 거기에 깃든 대중의 정신력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혁명적령도예술의 최고정화이다.

령도자가 위대한 사상론자이면 혁명전사들은 마땅히 견결한 사상론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 우리 당안에서는 사상사업을 내놓은 당사업과 혁명투쟁이란 있을수 없다. 당일군이건 행정일군이건 사상사업을 사활적인 요구로 내세우고 모든 일을 사람의 마음과의 사업, 사상감정과의 사업으로 진행하고있다. 그 어느 단위를 가나 사업에서의 성과의 비결도, 일이 잘되지 않고있는 원인도 사상문제에서 찾는 기풍이 차넘치고있다.

우리 당이 제일 경계하는것은 물질적조건을 운운하면서 사상발동을 소홀히 하는것이다. 사상이 발동되여야 경제문제도 풀리고 앞길이 열린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비결은 첫째도 둘째도 사상의 힘에 있다. 위대한 사상론의 기치가 세기를 이어 힘차게 휘날리고있기에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략전술이다.

사상전은 말그대로 공격전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당의 사상을 체득할수 있게 될 때라야 성공한 사상사업이라고 할수 있다. 사상사업은 언제나 대중의 정신력을 끊임없이 고조시키는 가속기가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상사업에서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사상의 포문을 일제히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여 모든 부문에서 성공의 열매들이 일시에 주렁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고계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전례없는 사상일군들의 대회합과 예술인대회를 소집하시여 사상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고 당사상일군모두를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형의 정치활동가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은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활력있게 진행되는 인민군대의 화선식정치사업방법은 우리 당사상사업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인민군대에서는 사상교양과 선동을 한번 해도 군인대중의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는 사업으로 되게 하고있다.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업에서는 빈말, 공대포가 없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바라시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실현을 위하여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잘 알려주고 군인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산악같이 일떠서게 하는것이 인민군대의 현장정치사업이다. 화선식선전선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전군에 백두산훈련열풍이 세차게 타번지고 당이 맡겨준 과업을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해제끼는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이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힘있게 나래치고있다.

화선식정치사업이 위력한것은 사람들을 무조건, 결사관철이라는 말밖에 다른 말을 모르는 투사들로 키우기때문이다. 동면하던 사람들도 눈을 번쩍 뜨게 하고 패배주의가 발붙일 자리도 없게 하는것이 인민군대의 화선식정치사업이다. 군인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세상에 당당히 내놓고 자랑할만 한 세계적인 건축물로 일떠세울수 있은것은 선전선동의 위력이 낳은 결실이다. 인민군대의 화선식정치사업을 구현하여 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는 당의 령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젊음으로 약동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칠것이다.

사상사업을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진행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이다.

사상사업은 그자체가 고도의 창조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사람들의 준비정도와 사업조건, 생활환경은 각이하다. 그런것만큼 사상사업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혁신되여야 한다.

창조적으로, 진취적으로, 이것이 사상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립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식적인 낡은 틀을 깨버리는것을 사상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문제로 내세우시고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지난 시기에는 비록 은을 낸것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부단히 혁신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요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형식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모란봉악단은 사상전의 근위포병집단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새것 또 새것, 인민들앞에는 같은 작품을 두번다시 내놓을수 없다는 끝없이 성실한 복무자세, 이것이 모란봉악단의 창조본때이다. 비행사들앞에서는 비행복을 입고 그들이 즐겨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량강땅인민들앞에서는 《빛나라 정일봉》, 《대홍단삼천리》와 같은 그들의 생활과 가까운 종목들을 펼치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온 사회에 약동하는 기상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공연의 목적도 인민을 위한것이고 공연과정도 인민을 흥분시키고 격동시키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기에 모란봉악단공연의 감화력이 무한대의것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오늘 모란봉악단이란 부름은 단순히 예술단체의 명칭이 아니라 선군시대 창조와 변혁의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다. 당에서 바란다면 열백밤을 패서라도 기어이 해내는 창조정신, 렬차행군을 하면서 이틀동안에 새로운 공연종목을 만들어내는 전투적기백, 서로 돕고 이끌면서 기량을 높여나가는 집단주의기풍이 모란봉악단에 꽉 차넘치고있다. 우리 당이 모란봉악단의 창조정신과 창조기풍을 따라배울데 대하여 그처럼 강조하고있는것은 사상전의 집중포화로 강성국가건설투쟁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는 과정에 사상사업이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산 정치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고있다.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을 배우며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사상은 생명처럼 귀중하다. 그 어떤 천만시련이 가로놓인다고 하여도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믿고 그 위력을 총폭발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중시로선이 있기에 강성국가건설의 시간표는 우리가 정한대로 흐를것이다.

3

최후의 승리는 위대한 사상과 정신으로 만장약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들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된 불패의 강국이다. 이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는 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데 있다.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참모부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길도 사상에 있고 우리 조국을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펴나는 나라로 일떠세우는 길도 사상에 있다. 우리는 위대한 사상의 힘으로 조선의 혁명가들이 어떤 기적을 창조하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위대한 사상론을 추켜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사상, 혁명방식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필승의 보검이다. 위대한 령장을 진두에 모신 인민은 반드시 세계의 앞장에서 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우리는 위대한 사상의 힘으로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주체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 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는것은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의 선결조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강성국가건설의 활로가 열려지고있다. 우리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는 길은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워나가는데 있다.

우리는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 핵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부동한 신념, 원수님의 결심은 곧 우리의 실천이라는 혁명적의지, 원수님의 부름이라면 전당,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싸우는 기풍이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일심단결의 기상이다. 우리는 당에서 준 과업을 즉시에 접수하고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해내는 견결한 투사가 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민군군인들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당정책을 말로만 외우고 그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에 강한 투쟁의 불을 걸어야 한다.

당선전일군들이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는것은 사상전의 포성을 힘있게 울려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에게는 항일의 나날에 마련된 사상사업의 위대한 전통이 있으며 선전선동사업의 귀중한 경험이 있다. 모든 당선전일군들이 항일유격대나팔수들처럼 천만군민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대오의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기수가 될때 우리의 진군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될것이다.

당선전일군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형의 정치활동가가 되여 전국을 들끓게 하고 전군을 혁명화하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사상을 뼈와 살로 새기고 일해나가는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 예술부문에서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기본정신을 튼튼히 틀어쥐고 21세기의 문예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모든 사상일군들은 당의 사상을 대중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면 한몸이 그대로 오선지가 되고 마이크가 될 각오를 안고 투쟁한 모란봉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창조기풍, 투쟁본때를 따라배워 인민이 기다리고 인민이 사랑하는 참된 일군이 되여야 한다.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리고 혁명가요가 강산에 메아리치게 하여야 한다.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는것은 우리의 사상진지를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지금 적들은 흑백을 전도하는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면서 우리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쉬임없이 들이밀고있다. 적들과의 대결은 군사적대결인 동시에 사상의 대결이다. 사상전선에서 한걸음 양보하게 되면 두걸음, 세걸음 양보하게 되며 나중에는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없다. 사상전선에서는 그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한치도 물러서서는 안되며 물러설 자리도 없다. 우리는 혁명적인 사상공세에 의거한 전략전술적우세로 적들과 끝까지 싸워 최후승리를 이룩해야 한다.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책동의 위험성을 똑바로 알고 비사회주의와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쓸어버리는 일대 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은 완강한 공격전, 철저한 박멸전으로 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취약성과 추악한 정체를 낱낱이 발가놓는 단수높은 대적언론전, 전파전으로 적들의 기를 꺾어놓아야 한다. 적들이 끈질기게 들이미는 자본주의독소가 우리 지경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2중3중으로 든든히 치면서도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주동적인 작전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 식의 건전하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과 기사, 편집물들을 더 많이 창작보급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부르죠아사상문화에 등을 돌려대게 하여야 한다.

사상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 로씨야인사들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왈레리 할릴로브 로씨야련방무력 군악국장 겸 군악총지휘자가 26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의 빠뜨리오뜨신문사 책임주필과 니쥬니노브고로드 《화보리뜨-엔엔》 유한책임회사 총사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빠뜨리오뜨신문사 책임주필 젬스꼬브와 니쥬니노브고로드 《화보리뜨-엔엔》 유한책임회사 총사장 예. 웨. 우쩨힌이 6일과 18일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이 나라에서 사업하고있는 관계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프놈 뻰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캄보쟈인민당창건 63돐에 즈음하여 귀 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캄보쟈인민당이 민족적단합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당의 강화발전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귀 당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우리 두 당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3(2014)년 6월 27일 평 양

순갑혁명사적지에 새기신 숭고한 뜻

순갑혁명사적지,

오늘도 유서깊은 이 땅에 마음을 세우면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가 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영원할것입니다.》

어느해 건군절이였다.

이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나먼 최전연에로의 전선길에 오르시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산과 강, 고개를 넘어 어느덧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야전차가 멈춰선 곳은 뜻밖에도 순갑혁명사적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여기가 바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사령부가 자리잡고있었던 곳이라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사적지라고 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전승업적이 깃들어있는 사적지의 지형지물을 보고 또 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생각은 깊으시였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순갑혁명사적지는 알려지지 못하였었다.

세월의 년륜속에 파묻힐번 하였던 사적지는 인민군군인들과 연고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발굴이 시작되여 사적자료를 수집정리하고 그 위치를 고증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이 깃들어있는 전선사령부 현지지도사적발굴사업을 더욱 심화시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받아안은 군인들은 순갑혁명사적지에 대한 발굴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전선사령부지휘소뿐아니라 여러 부대들이 있던 자리, 화선휴양소, 속사리물방아간을 비롯한 현지지도사적들을 발굴정리하고 원상대로 혁명사적지를 꾸리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나먼 여기 최전연의 혁명사적지를 찾게 되시였던것이다.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부대군인들이 큰일을 하였다고 치하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적아간의 공방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던 1952년 10월 1일 몸소 포연탄우를 헤치시고 전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이곳에 찾아오시여 적들의 새로운 공세에 대처할 탁월한 군사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 식의 전법으로 싸울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심정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높뛰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체취가 아직도 그대로 슴배여있는듯 한 사적지의 곳곳이 그날의 뜻깊은 추억들을 전해주는것만 같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표식비앞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표식비에 새겨진 글들을 한자한자 읽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순갑혁명사적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버이수령님께서 최전선에 나오시여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신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뜻깊은 곳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한 나라 수령이 포연탄우를 헤치고 최전선까지 나온다는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처럼 병사들을 사랑하시고 한몸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전화의 불길속을 앞장서 헤쳐온 그런 수령은 없습니다.…

이윽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전선사령부에 오시여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여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식의 전법으로 싸워 적들의 《김화공세》를 격파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지 않았더라면 인민군대가 큰 손실을 당할번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돌이켜보면 1952년 가을의 전선형편은 얼마나 심각하였던가.

당시 미제는 방대한 병력과 비행기, 땅크, 각종 포, 함선 등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새로운 《김화공세》를 준비하고있었다.

적들은 김화, 평강, 철원을 련결하는 삼각지대를 점령한 다음 주타격을 회양방향에 지향하며 통천일대에 상륙하는 부대들과 합세하여 인민군부대들의 주력을 《포위소멸》하고 차후 전선을 우리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침략자들의 음흉한 목적은 쓰디쓴 참패만을 남기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신 령활한 작전전술적방안에 의하여 40일간 계속된 적들의 대공세는 하늘과 땅, 바다에서의 비참한 패전으로 끝났으며 우리 인민군대는 또다시 빛나는 승리를 떨치였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였다.

끝없는 격정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수령님은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라고 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무궁번영할 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산발을 타고 울려퍼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말씀에서 일군들은 건군절날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순갑혁명사적지를 찾으신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전승업적은 영원히 대를 이어가며 전해질것이라는것을.

본사기자 림정호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강철의 령장

어버이수령님과 서울시민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수안보에까지 나가시여 지휘관들과 인민군전사들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신 사실을 오늘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알고있다. 수안보로 가시던 우리 수령님께서 바로 서울시에 머무르실 때의 일이다.

활력에 넘친 시내를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북적거리고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시민들가까이로 조용히 다가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중에서 백발수염을 날리며 서있는 한 로인을 만나주시였다.

《할아버지, 해방을 맞이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다정히 손을 잡아주시며 물으시는분이 바로 백두산호랑이로 명성이 자자하신 어버이수령님이심을 미처 알아뵙지 못한 로인은 《평생소원이 다 풀린것 같수다.》라고 흥에 겨워 대답하였다.

로인의 꾸밈없는 대답에서 만족을 느끼신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지난날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이제는 해방이 되였으니 우리 세상이 되였습니다.》**라고 정겹게 말씀하시였다.

류달리 우렁우렁하면서도 인자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음성과 남다른 인품에 이끌려 서인지 떠들썩하던 주위사람들이 점차 그이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그들도 너무도 소탈하고 겸허하신 그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신줄은 모르고있었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모여선 군중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여러분! 해방이 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앉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날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는 미국놈들에 의하여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였다고, 그리하여 우리들은 보고싶은 부모형제들을 지척에 두고서도 만나보기는 고사하고 편지거래조차 할수 없었다고 하시였다.

침략자들은 결코 패배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열정에 넘쳐 말씀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는 군중속에서 격정의 파도가 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희열에 넘쳐있는 군중의 모습을 일별하시며 오늘 우리에게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와 공화국정부의 주위에 철통같이 뭉친 영웅적인민이 있으며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로 조직된 강철같은 인민군대가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인민은 다시는 쓰라린 망국노의 운명을 되풀이할수 없다, 전체 인민이 힘을 합쳐 미제를 쳐부시고 통일된 삼천리금수강산에 행복한 인민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환호가 터져오르고 요란한 박수가 계속되였다. 《우리모두 의용군에 입대하자!》, 《미국놈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다.

얼마나 만나보고싶으시였던 남녘의 동포들인가. 그들과 나누고싶은 이야기도 많으신 그이이시였다. 하건만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시간이 너무도 모자라시였다.

세차게 끓어번지는 군중들을 한동안 미덥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중앞에 나서실 때처럼 조용히 자리를 뜨시였다.

잠시후에야 방금전까지 자기들과 함께 계시며 연설하신분이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것을 알게 된 서울시민들은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웨치였다.

그날 이 격동적인 소식은 사람들속으로 전해지며 삽시에 온 서울시내에 퍼지였다. 누구는 김일성장군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뵈왔다고, 또 누구는 그이와 직접 대화까지 나누었다는 이야기로 집집의 창가마다에서는 밤새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오늘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어버이수령님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그리며 따르는것은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는 남녘의 민심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백영미

최고사령부 작전실

조국해방전쟁사적지에 있는 최고사령부 작전실,

한 나라의 최고사령관이 리용한 작전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소박하고 수수한 이 방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은 그 어느 위인과도 대비할수 없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습니다.》

작전지도도 한 벽면에 걸수 없어 다음벽면에 잇닿아 걸지 않으면 안되였던 이 크지 않은 방에서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작전과 전법들이 태여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작전실에서 수많은 최고사령관명령과 친서들을 내리시였고 땅크사냥군조운동을 비롯한 수많은 주체전법들을 창조하시였으며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 보고문을 비롯한 고전적로작들도 집필하시였다.

전선동부를 타격하려는 미제의 흉악한 기도가 아직은 작전문건에만 옮겨진데 불과했던 때 여기 최고사령부 작전실에서 적들은 바로 여기를 노리고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동부의 1211고지를 비롯한 전략적요충지들에 우리의 방어력량을 구축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어주신 좌표를 따라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장병들은 적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고 조국의 고지를 사수하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정형고지전투의 빛나는 승리도 여기 최고사령부 작전실에서 마련된것이였다.

전선형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담한 작전을 구상하시고 무려 12시간동안이나 군용전화기로 30분에 한번씩 포부대들의 기동정형을 보고받으시면서 직접 전투를 지휘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이 낳은것이였다. 그 불멸의 업적을 조국해방전쟁사적지의 최고사령부 작전실이 오늘도 숭엄히 전하고있다.

채히성

전선사령관이 들려준 이야기

한 종군기자의 수기

서울해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자료에 대하여 쓴 한 종군기자의 수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신 비범한 군사적지략과 령군술, 숭고한 인민적풍모에 대하여 오늘도 전하고있다.

《전선으로 나가던 길에 나는 서울에 자리잡고있는 전선사령부에 잠간 들리게 되였다. 전선의 형편도 알아보고 서울해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취재하고싶었다. 나는 전선사령관 김책동지를 찾아가 보고한 다음 최고사령관동지의 신임장을 꺼내보였다.

…

김책동지는 식사를 같이하면서 전선정황도 알려주고 서울해방전투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들려주었다.

…

김책동지는 인류력사는 많은 전쟁사를 기록하고있지만 이렇게 사흘만에 수도가 함락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항일대전에서 일제의 백만대군을 타승하시고 조국해방의 위업을 이룩하신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예술과 백전백승의 전법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는 승리였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왜 서울해방전투에서 공격시간을 새벽 5시로 정하였는가?

김책동지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밤에 서울로 공격해들어가면 서울시민들이 상할수 있고 또 서울시내에 있는 경복궁, 덕수궁, 창경원, 남대문 등 문화유적들이 손상될수 있다는것을 헤아리시고 공격에 좀 불리하다 하더라도 날이 밝은 다음에 서울로 공격해들어갈것을 명령하시였다. 그래서 6월 28일날이 다 밝은 새벽 5시가 총공격시간이 되였던것이다.

진정 오직 인민을 위하시는 한마음으로 그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며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기에 시각을 다투는 중요한 전투를 작전하고 지휘하실 때에도 먼저 인민들의 생명재산에 해가 끼칠세라, 문화유적들에 손상이 갈세라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던것이다.

인류사회에 계급이 생기고 국가가 형성되여 수천년, 어느 나라 전쟁력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가!

김책동지가 들려준 이야기에 끝없이 감동된 나는 서울해방에 대한 전투상보는 이미 소개되였지만 이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꼭 세상에 널리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글을 썼다.》

서울해방에 관한 소식은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본사기자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3일만에 서울을 해방한 인민군군인들 괴뢰중앙청에 공화국기를 휘날렸다.

날강도 미제를 죽탕쳐버리고 우리 인민의 쌓이고쌓인 원한을 기어이 풀자

황해남도, 함경북도군중대회 진행

【평양 6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황해남도, 함경북도군중대회가 27일에 진행되였다.

대회장들은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소탕하고 우리 인민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 멸적의 의지로 피를 끓이며 모여온 각계층 군중들로 차고넘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선군의 위력으로 반미성전에서 백승을 떨치자!》 등의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대회장들에 세워져있었다.

대회들에는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황해남도군중대회에서는 최정룡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해주금강청년제련소 초급직맹위원장 김윤옥,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해주시 장방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박봉찬,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부부장 최충심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야수들이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평화적인 도시와 마을, 공장과 농촌, 어촌을 완전히 재더미로 만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미제승냥이무리들이 전쟁 3년간 황해남도에서 26만여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으며 심지어 세균무기와 화학무기까지 사용한 만행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절대로 잊을수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천추에 용납 못할 미제의 죄행은 히틀러파쑈도배들의 만행을 훨씬 릉가하는 특대형 반인륜범죄이라고 폭로규탄하였다.

력사와 현실은 미제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고 우리 민족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백년숙적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두가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한평생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계시면서 품들여 마련해주신 선군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이 땅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연설자들은 이 땅에 또다시 침략전쟁의 불구름이 몰려온다면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인민군대와 어깨겯고 침략자들을 박멸해버릴것이라고 말하였다.

재령과 은률의 광부들을 비롯한 도의 로동계급은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를 억세게 틀어쥐고 광물과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도의 전체 농업근로자들이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을 충정으로 받들고 결사옹위하였던 김제원농민영웅의 모범을 따라배워 알곡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청년전위들은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무모한 북침전쟁소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일단 명령만 내리면 원쑤격멸의 성전에 한결같이 떨쳐나 전쟁미치광이들을 죽탕쳐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함경북도군중대회에서는 리상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기사장 정영춘,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청진시 송평구역 송향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최란영,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청진광산금속대학 학생 석혁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지금으로부터 64년전 미제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하려는 야망밑에 현대적무기로 장비된 저들의 방대한 침략무력과 남조선괴뢰군,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동원하여 전대미문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하였다.

미제야수들이 도에서 8만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으며 수많은 살림집과 건물들을 여지없이 파괴하고 수백정보의 농경지를 페허로 만드는 만행을 저지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해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또다시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려는 야망밑에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고 말하였다.

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 결사옹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의 공장,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한알한알의 낟알을 원쑤들의 가슴팍에 맞구멍을 내는 멸적의 총탄으로 여기고 알곡증산투쟁을 힘차게 벌려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워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청년학생들이 혁명의 군복을 입고 다가올 조국통일대전에서 용맹을 떨치며 어랑천발전소건설과 청진시 포항중심부건설 등 중요대상건설에서 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와 슬기를 남김없이 떨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들은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어 진행된 반미시위들에서 참가자들은 일단 명령만 내리면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최후결사전에 용약 달려나가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고 세기를 이어 쌓이고쌓인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말 멸적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에서 선구자, 개척자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가리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현장지휘부의 일군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야 합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이 공사장마다에서 사상의 포문을 더욱 힘차게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면서 돌격대원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천보의 불길을 애국충정의 거센 불길로

조선속도, 제2의 희천정신창조투쟁으로 들끓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마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사상의 위력으로 승리떨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이 공세적으로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지난 6월 4일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77돐에 즈음한 건설자들의 우등불모임이 진행되였다.

희천9호발전소건설장에서 진행된 모임에서는 현장지휘부 정치일군과 려단의 지휘관, 로력혁신자들, 각 단위들에서 선발된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우등불을 지피였다.

섬광이 번쩍이고 우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속에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랑송되고 련이어 울려퍼진 불후의 고전적명작 《반일전가》와 《사향가》그리고 《유격대행진곡》, 《적기가》를 비롯한 혁명가요들의 선률은 돌격대원들에게 우리 혁명의 만년대보를 대를 이어 빛내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게 하였다.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빨찌산식이로다》등의 노래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시였던 주체의 홰불봉이야말로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온 승리의 기치였음을 가슴뜨겁게 절감시켜주었다.

《인민은 일편단심》, 《한마음 따르렵니다》등 노래의 은은한 선률속에 진행된 결의토론들과 《발걸음》,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가요의 우렁찬 합창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청천강용사들의 충정의 세계를 총폭발시켜주면서 백두의 혁명정신,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발전소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 신념의 맹세를 다시금 굳게 가다듬게 해주고 전체 돌격대원들로 하여금 련이어 언제와 발전기실공사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다.

또다시 단행한 2 000리 집중수송

지난 6일부터 3일간 전례없는 로정의 집중수송전투가 또다시 벌어졌다.

이미 5월 중순 발전설비생산기지의 설비생산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파철수집과 수송전에 이어 이달에 거듭 진행된 집중수송전투는 사상의 위력이 어떤 기적적인 현실을 낳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준 중요한 계기라고도 할수 있다.

—청천강용사답게 계속공격정신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앞장에서 받들자.

일군들의 이런 결심과 기백넘치는 화선식정치사업은 각 단위 지휘관, 돌격대원들의 심장을 충정의 열도로 활활 타오르게 하였다.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이 더욱 분출되는 가운데 내부예비가 최대한 탐구동원되고 또다시 100여t의 파철이 수집되였는데 이것은 일군들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였다.

수송전투는 더욱 간고하였다. 그 거리는 왕복 2 000리나 되였다.

이른아침부터 자정이 훨씬 넘을 때까지 불과 몇시간밖에 눈을 못 붙이면서 운행과 하차, 련이은 상차와 다음장소까지의 운행 등 여러 공정을 거쳐야 하는 그야말로 힘겨운 전투였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발전소완공을 앞당기겠는가 하는 일념은 수송대오로 하여금 견인불발의 의지를 낳게 하였으며 서해안의 설비생산기업소와 자재상차장,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도로주변에 늘어선 인민들의 환송속에 수송전투는 더욱 줄기차게 벌어졌다.

선두의 방송선전차에서 울려퍼지는 노래 《발걸음》,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힘찬 선률과 운행길에서 격식없이 벌어진 일군들의 화선선동,

류다른 참관을 통해 얻은 실효

지난 6월 18일 발전소건설장에서는 지휘부적인 참관사업이 진행되였다. 선정된 대상만이 아니라 모든 단위를 참관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류달랐다.

모든 단위들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도록 할 목적으로 뜻깊은 기념일을 하루앞둔 날에 진행되여 실효는 더욱 컸다.

참관로정은 발전소순차별로 공사장을 돌아보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는데 해당 단위들의 공사추진정형은 일군들로 하여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격발시켜주었다.

올해초까지만도 언제방향으로 진격하기 위한 가물막이뚝이 형성된데 불과하였지만 평양시려단이 맡은 희천9호발전소건설장에서는 전구간의 언제수문기둥공사가 끝나고 많은 단위 언제공사장들에 몇달 안되는 사이에 우뚝우뚝 언제수문기둥들이 치솟아올랐으며 발전기실건설장마다에 굽은관, 원추관에 이어 작업낭개실, 회리실, 고정륜들이 들어앉은 자랑찬 현실은 모두에게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또한 공사정형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경험을 나누는것은 물론 모두가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의 주인이 되여 발전소건설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갈 열의로 심장을 불태워주는데서 참관사업의 의의는 더욱 컸다.

규모있게 정리된 황해남도려단의 공사장주변과 철도성, 평양시려단의 인입도로들, 철도성려단 개천철도국대대의 병실, 세목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의 전변의 현실은 참관자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나깨나 그리며 고결한 충정을 바쳐가는 청천강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뜨겁게 엿보게 하면서 지휘관의 본분과 역할을 다해나갈 열의로 가슴 불태워주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불길속에 공사성과는 나날이 더욱 확대되고있다.

이신작칙은 돌격대원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선길, 초강도강행군길을 절감하게 해주었고 전례없는 집중수송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발전소완공기일을 앞당기는데서 전환적계기를 열어놓게 하였던 것이다.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함경남도려단에서

함경남도려단이 맡은 희천11호발전소건설장에 새로운 창조와 비약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전투장들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은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이곳 발전소건설장은 다른 단위에 비해 강폭이 넓으며 언제와 발전기실규모도 크다. 공사량이 방대하고 작업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려단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며 전투장마다에서 함남의 정신, 함남의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불과 한주일동안에 1만여㎥의 굴착과제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 수력구조물들의 련속콩크리트치기에 진입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제끼였을 때였다. 모두들 함경남도려단이 발휘한 전투력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하면서도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그동안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돌격전을 벌리느라 대원들이 모두 지친데다 굴착이나 성토와는 달리 기술적요구가 높고 기술장비수준과 자재보장이 큰 역할을 하는 콩크리트치기에서 려단이 공사속도를 계속 높이기는 어려울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이 시각 우리의 주인공들은 어떠하였던가.

《피눈물의 언덕에서 다진 맹세를 목숨바쳐 지켜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잘 받들자고 온 나라에 절절히 호소했던 우리 함남사람들이 아닌가. 눈물이나 흘리고 만세나 불러서는 소용이 없다. 굴할줄 모르는 완강한 투쟁과 높은 건설성과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의 앞장에 바로 우리가 서자!》

려단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앞에서 정치부장 신학철동무가 불같이 토로한 신념의 호소이다.

모두가 피끓는 심장으로 열렬히 화답하며 비상한 각오와 투지에 넘쳐 또다시 련속콩크리트치기전투에 뛰여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격전이였다.

쉬임없이 강철팔을 휘두르는 굴착기와 질풍같이 오고가는 대형화물자동차들, 만부하의 동음드높은 양수기와 혼합기들, 현장을 들었다놓는 경제선동의 북소리에 발맞춰 붉은기를 펄펄 휘날리며 구보로 내달리는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련속콩크리트치기에 드센 박차를 가하는 전투대오에서 지휘관과 대원이 따로 없었다.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오직 타입, 이 하나만을 생각하며 뛰고 또 뛰였다.

《불리한 작업조건이나 겹쌓이는 피로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것은 시간, 시간이 모자라는것이였습니다.》

돌격전의 나날을 더듬으며 덕성군대대의 기술참모 김덕호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립체전, 전격전을 들이댈 결심밑에 질통전과 맞들이전으로 기계화수단들에 도전하였다. 특히 박일현동무를 비롯한 덕성군대대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이 공사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나갔다. 이들은 대형화물자동차와 수직운반설비들의 가동시간을 분초를 따져가며 분석한데 기초하여 작업구간의 실정에 맞게 새로운 운반통로개설과 발판형성, 합리적인 휘틀조립 및 분해방법을 창안도입함으로써 기계화수단들을 훨씬 따라앞서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장진군대대와 단천시대대, 흥남항대대와 허천군대대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이 불굴의 정신력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맡은 수문기둥들을 빠른 속도로 일떠세웠다.

함경남도려단의 전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불타는 충정과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불꽃튀는 건설전투를 벌림으로써 콩크리트치기에서 종전의 최고기록을 돌파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이들은 고결한 충정과 결사관철의 정신력, 헌신적인 투쟁기풍을 지니고 오늘도 조선속도창조의 기상을 더 높이 떨치며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하루빨리 발전소를 완공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삼가 올릴 불타는 열정안고.

신들메를 더 조이고 분발해나섰다

황해남도려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앞장에서 더욱 용기백배하여 투쟁해나감으로써 오늘의 승리가 래일의 더 큰 승리로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로 들끓는 희천9호발전소건설장이다.

지금 여기서는 청천강을 가로지르며 만년대계의 언제를 보란듯이 일떠세운 평양시려단의 전투원들이 막아서는 장애물들에 련속 강타를 들이대며 완공의 령마루를 향해 총공격해나가고있다.

언제와 발전기실, 방수로공사장에서 립체전, 전격전이 치렬하게 벌어진다.

전투력이 강하기로 소문난 황해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며 분발해나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 일군들은 당의 건설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유능한 작전가, 완강한 실천가가 되여야 합니다.》

매달 건설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고 여러차례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닌 이곳 려단이 거둔 성과는 참으로 크다. 허나 희천5호발전소건설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훌륭하게 완수하자면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으며 찾게 되는 경험과 교훈도 크다는것이 이곳 지휘관들의 립장과 견해이다.

이들은 지난 시기 계획수행일면에만 매여달리면서 전반적인 공사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고 특히는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보장을 확고히 앞세우지 못한데서 심중한 교훈을 찾고 발전소건설을 더욱 빠른 속도로 다그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짜고들고있다.

려단장, 정치부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종전의 낡은 사업방식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자재일군들과 함께 어깨나란히 마음도 합쳐가며 수백리길을 쉬임없이 오가면서 필요한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다.

자기 단위의 공사실정과 돌격대원들의 비상히 앙양된 열의에 맞게 전투목표를 구체적으로 더 높이 세우고 정치사상교양과 후방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면서 대중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을 비롯한 지휘관들과 기술자, 기능공들로 다른 단위들에 대한 참관을 실속있게 조직하여 앞선 공사추진정형을 직접 제눈으로 보고 성과와 경험을 허심하고 진지하게 배우면서 더 큰 비약의 계기로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잘해나가고있다.

옹진군대대와 강령군대대의 전투원들이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고 각종 설비들의 만부하를 책임적으로 보장하면서 매일 맡은 과제를 어김없이 질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배천군대대와 은률군대대, 벽성군대대와 장연군대대, 은천군대대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이 앞선 공사방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고 집단주의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콩크리트치기전투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발전기실공사를 맡은 신천군대대, 재령군대대의 전투원들도 자체의 힘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면서 밤낮이 따로 없이 치렬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진취적인 안목과 완강한 일본새를 지니고 순간의 답보도 없이 완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전진, 계속혁신해 나아가는 황해남도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앞으로의 공사성과가 기대된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현지보도‖ 련속공격!

◎평양시려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앞장에서 더욱 용기백배하여 투쟁해나감으로써 오늘의 승리가 래일의 더 큰 승리로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로 들끓는 희천9호발전소건설장이다.

지금 여기서는 청천강을 가로지르며 만년대계의 언제를 보란듯이 일떠세운 평양시려단의 전투원들이 막아서는 장애물들에 련속 강타를 들이대며 완공의 령마루를 향해 총공격해나가고있다.

언제와 발전기실, 방수로공사장에서 립체전, 전격전이 치렬하게 벌어진다.

전투력이 강하기로 소문난 만경대구역대대의 미더운 돌격대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린다.

육박의 창끝인양 침착기를 억세게 틀어쥔 고혁철, 윤금철, 유성철동무들이 방수로바닥과 옆벽의 암반을 향해 드센 타격을 들이댄다.

침착기앞부분이 통채로 들이박힐 때마다 덩지큰 천연바위들이 잠간사이에 벌둥지처럼 되고만다. 락랑구역대대의 발파공들인 김주혁, 탁정철동무들이 숙련된 솜씨로 물기방지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면서 지정된 구간마다 장약을 민첩하게 해나간다.

《전체 주의, 발파!》

야무진 호각소리와 힘찬 구령소리에 뒤이어 요란한 발파소리가 건설장을 뒤흔든다.

—꽝, 쾅쾅, 꽈르릉…

베개통만 한 돌들이며 집채같은 흙기둥이 치솟았다 내리기바쁘게 모란봉구역대대와 보통강구역대대, 평천구역대대와 강동군대대의 돌격대원들이 앞서거니뒤서거니 승부를 다투며 굴착과 버럭운반과제를 불이 번쩍나게 해제낀다.

이에 뒤질세라 맞은켠에 자리잡은 발전기실공사장에서도 콩크리트치기전투가 열기를 띠고 벌어진다. 발전기실하부설비인 굽은관 및 원추관들의 조립, 매몰작업을 성과적으로 끝낸데 이어 선교구역대대와 대동강구역대대, 동대원구역대대의 남녀돌격대원들이 혼합기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면서 련속콩크리트치기에 세찬 박차를 가한다.

오경석, 리종철동무를 비롯하여 려단적인 기준대대들로 손꼽히고있는 중구역대대, 룡성구역대대와 력포구역대대의 지휘관, 돌격대원들도 빠른 시일안에 모든 수문기둥들을 억척같이 일떠세운데 기초하여 수문틀 2차타입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산정의 수리개마냥 아찔하게 솟은 수문기둥들을 굽어보며 휘틀조립과 콩크리트치기를 다그쳐 혁신을 창조한 이들의 얼굴마다에 방대한 량에 달하는 언제의 기본구조물건설을 제일먼저 끝낸 승리자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비껴있다.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우리 려단은 숨돌릴새없이 련속공격을 들이대여 장마철전으로 물고기길의 2차콩크리트치기, 방수로바닥타입을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하여 발전소건설에서 통장훈을 부르고 완공의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남먼저 휘날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이곳 려단장의 신심에 넘친 말이다.

그에 화답하듯 온 건설장에 총공격전의 함성이 더욱 우렁차게 울려퍼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공사실적은 부쩍부쩍 뛰여오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하루빨리 청천강을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평양시려단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이 계속혁신의 앞장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간다.

위훈의 창조자들

평양시려단 력포구역대대 대대장 장관옥동무

황해남도려단 탑사관리국대대 참모장 김학성동무

함경남도려단 장진군대대 대대장 김충일동무

박봉주총리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현지료해

【평양 6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박봉주내각총리는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기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배워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을 일으키는것과 함께 원양어업준비를 다그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총리는 원양선단의 여러 고기배들과 낚시도구품평회장을 돌아보고 어황조건과 어황구역, 어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으며 전세대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 이어받아 올해에 원양어업에서 대혁신을 일으킬 결의에 충만되여있는 어로공들을 고무격려해주었다.

현지에서 동해지구 수산부문 일군협의회가 진행되였다.

협의회에서는 함북, 함남, 강원지구 수산사업소들의 생산토대와 잠재력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동해지구에서 전형을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고기배들을 현대화하고 부두준첩과 방파제보수를 정상화하며 배수리에 필요한 전력과 부속품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어로공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원양과 근해어업을 다같이 밀고나가기 위한 대책들이 세워졌다.

총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력한 원양어업기지로 전변된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가 만선의 배고동소리로 당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순천부두준공식진행

【순천 6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순천부두가 새로 건설되였다.

나라의 수상운수를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완공된 순천부두는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창조물이다.

순천부두가 건설됨으로써 순천—평양—남포사이의 석탄, 세멘트, 알곡을 비롯한 물동들과 려객수송의 긴장성을 훨씬 줄일수 있게 되였다.

준공식이 27일에 진행되였다.

륙해운성과 산하단위 일군들, 종업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곽일룡 륙해운성 부상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새로 건설된 순천부두준공식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몸소 순천갑문을 돌아보시면서 순천지구에 부두를 건설하고 대동강배길을 준첩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대동강을 비롯한 강하천을 리용하여 수상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순천갑문상류에 부두를 건설하여 배에 의한 화물수송을 진행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륙해운성 일군들과 정무원들,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 3월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비약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힘찬 공격전을 벌리였다.

순천부두건설을 맡은 건설자들은 엄동설한에도 허리를 치는 감탕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감탕처리와 박토매몰, 대형부재생산을 동시에 내밀어 완공을 앞당길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대동강배길을 맡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과감한 돌격전으로 준첩선과 운반선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수십만㎥의 대동강바닥을 파내고 순천에서 남포까지의 시험운항을 보장하였다.

연설자는 륙해운성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대동강운하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배길에 대한 정상적인 준첩작업과 갑문보수사업을 진행하고 배들의 운항을 원만히 보장하는 등 대동강을 통한 수상운수를 부단히 활성화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당의 의도대로 대동강을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꽃피우는 락원의 강, 행복의 강으로 더욱 변모시킴으로써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속에 새로 건조된 화물운반선이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며 첫 출항을 하였다.

온 나라의 본보기로 전변되여가는 온실남새생산기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랑의 력사

장천땅에 경사가 났다.

꿈결에도 그리며 달려가 안기고싶던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농장을 찾아주시였기때문이다.

당에서 남새온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장려하라고 하는것은 우리 인민들이 한겨울에도 오이, 도마도, 쑥갓, 부루와 같은 신선한 남새를 늘 먹게 하자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불볕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온실남새생산의 전형단위로 꾸리자는것이 당중앙의 결심이라고 크나큰 사랑을 담아 말씀하실 때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모습을 뵈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지난날 온통 진흙투성이여서 남새농사를 할수 없다던 장천땅이였다.

한겨울의 맵짠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주체53(1964)년 1월 장천땅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장의 결산분배정형을 알아보시였다. 농장에서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분배때 빈봉투들을 받게 되였다는 한 애어린 처녀의 하소연을 들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몹시 가슴아프신듯 벽에 등을 기대시더니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농산기수처녀의 이야기를 수첩에 하나하나 적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장천을 책임지겠다고, 올해에는 이 농장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농장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다시 오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떠나신 다음날 장천땅에는 또다시 꿈같은 일이 펼쳐지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쌀과 영농기재, 갖가지 생활필수품들이 도착하였기때문이다.

결산분배가 그날 장천땅에서 다시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었던 일이였다. 하지만 그때 장천사람들은 장천땅을 다녀가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그길로 저녁식사도 건느신채 비상회의를 소집하시고 농장을 시급히 추켜세울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신줄을, 뒤떨어진 농장들때문에 아프신 마음을 안으시고 녀성들의 겨울목도리에 이르기까지 농장원들의 생활상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신줄을 알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 불러오신 장천땅의 전변의 새봄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그때로부터 이 농장을 수도의 이름있는 남새생산기지로 전변시켜주시려 우리 수령님께서는 끝없는 사랑과 헌신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그 사랑의 력사속에는 저택의 시험포전에서 가꾸어보신 배추에 대한 자료를 농장에 보내주신 이야기도, 많은 강재를 보내주시여 분수식발판수를 하도록 해주신 사연도, 무더위로 숨이 막히는 온실에 오래도록 계시며 수도시민들에게 신선한 오이를 사철 떨구지 않고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던 어느해 4월의 잊지 못할 날도 깃들어있다.

아득히 펼쳐진 남새밭을 바라보시며 푸른 바다와도 같다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우리 수령님, 배추의 무게도 몸소 달아보시며 못살던 농장이 남새농사를 잘하는 농장이 되였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그날의 인자하신 그이의 영상은 이곳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간직되여있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장천땅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3(1964)년 3월 또다시 이곳을 찾으시여 농사를 잘 지어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농업근로자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빈봉투농장》의 가슴아픈 사연을 눈물속에 말씀올리지 않으면 안되였던 이곳 농민들이 어버이수령님 안겨주신 행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부르도록 하시려 우리 장군님께서 기울이신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장천땅은 잊지 못한다.

80고령의 년로하신 몸으로 농장에 찾아오시여 래년 가을에 꼭 다시 오겠다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약속을 지켜주시려 우리 장군님께서는 당과 국가의 일군들을 농장에 보내주시였다.

오늘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장천농장원들과 약속하신 날이라고, 그들이 수령님을 그리며 울고있을 생각을 하니 전선길을 가는 나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동무들이 나 대신 나가 위로도 해주라고 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는 뜨락또르와 함께 가야금까지 보내주시였다.

언제인가는 장천의 관리위원장이 어버이수령님께 이제는 년세도 많으신데 이런 험한 포전길을 더는 걸으시지 말아달라고 말씀올린 사실도 뜨겁게 회고하시고 또 언제인가는 우리 수령님 처녀관리위원장이라고 늘 사랑을 담아, 정을 담아 불러주시던 김명연영웅관리위원장이 올린 소박한 편지를 받아보시고 뜻깊은 친필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돌리시였던 이 농장이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은 또 얼마나 크나큰것인가.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여러가지 남새를 많이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그토록 대견해하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 기쁨속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 온 장천땅이 뜨거운 격정의 바다로 설레였다.

세월은 흘러도 변함없는 절세위인들의 이런 크나큰 은정속에 장천사람들이 살고있고 온 나라 인민이 살고있다.

장천땅에 수놓아진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랑의 력사를 대를 이어 전해가며.

글 본사기자 리금분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장천땅이 전하는 이야기

몸소 들어주신 빈봉투이야기

지난 6월 9일,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농장관리위원장은 빈봉투에 깃든 사연을 말씀드리였다.

빈봉투사연으로 말하면 관리위원장이 처녀시절 농장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 철없이 농사를 잘하지 못하여 분배날에 빈봉투만 받았다고 말씀드린 이야기였다.

관리위원장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철없는 시절 어버이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조나 피만 심어먹던 농장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손길아래 남부럽지 않게 잘사는 농장으로 되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올리였다.

관리위원장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장천농장은 일을 잘하는 농장이라고 분에 넘친 치하를 주시였다.

명철한 가르치심

장천혁명사적교양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장에 깃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전해주는 사진문헌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온실남새재배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실남새농사에서는 재배기술과 종자가 기본이라는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실남새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이날 오랜 기간 온실남새농사를 지어온 자기들도 미처 몰랐던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는 농장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젖어들었다.

크나큰 믿음, 높은 평가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농장은 수십년간의 온실남새력사를 가지고있는 농장이라고 하시며 농장을 본보기로 잘 꾸려놓고 온 나라가 여기에 와서 다 배워가도록 하자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시려고 여기에 남새온실을 꾸려주시고 많은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농장은 남새온실의 고향이라는 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믿음과 평가속에는 앞으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이 온실남새생산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데 대한 크나큰 기대가 어려있었다.

무더위속에서

장천혁명사적교양실을 나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개건된 남새제1작업반 7분조 온실을 찾으시였다.

온실에는 한창 무르익는 도마도가 아지마다 주렁져있었다. 그때 온실의 온도는 높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찌는듯 한 더위속에서도 오랜 시간 작업반장의 자랑섞인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온실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다가 문득 기둥에 써붙인 명찰을 가리키시며 저것이 무엇인가고 물으시였다.

포전을 담당한 농장원의 이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해야 책임성이 높아진다고 하시며 농장원 한사람이 관리하는 면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남새농사를 잘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21세기 표본농장으로

오랜 시간 농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21세기 제일 멋있는 표본농장으로 설계하여 잘 꾸려주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누가 와보아도 부러워하도록 평양시당위원회가 틀어쥐고 온 나라의 본보기가 되게 농장을 잘 꾸려주자고 강령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전국의 본보기가 되도록 크나큰 믿음을 주신것만도 과분한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기되는것은 자신께서 다 풀어주겠다고 하시며 관리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를 즉석에서 해결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특파기자 최수복

실리를 담보하는 다모작재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온실에서는 실지 주민들에게 차례질수 있는 남새를 심어 긴장한 남새문제를 푸는것이 기본입니다.》

최근년간 이 농장에서는 20여정보의 온실에서 해마다 5 000여t의 남새를 생산하여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다. 성과의 비결은 실리를 담보할수 있는 재배방법을 받아들인데 있었다.

지금 이 농장에는 수백동의 여러가지 형식의 남새온실들이 있다. 그중에는 한동의 면적이 1 500평 되는 련동식온실들도 있다. 지난 기간 농장에서는 해마다 이 온실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야외에서 남새농사를 할 때보다 몇배의 실리를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12동이나 되는 이 온실을 년중 비우지 않고 남새농사를 지었는가.

최근년간 농장원들은 이 온실포전들에 정보당 20t이상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내고 소형뜨락또르로 밭을 갈아엎은데 이어 경운기로 써레치기를 하였다. 다음은 너비가 120㎝ 되게 두둑을 짓고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시금치씨를 뿌리였다. 6~7일 지나서부터 3일에 한번씩 물주기를 하였다. 잎이 2~3개 되면 덧비료를 주었다.

수확은 2월 10일경부터 3월말까지 단계별로 하였다. 농장원들은 시금치를 수확하는족족 포전을 갈고 봄배추생산을 앞세우면서 오이와 도마도, 부루와 쑥갓도 생산할수 있게 또다시 두둑을 지었다. 이에 앞서 그들은 1월초부터 모판을 만들고 성형알판을 리용하여 배추모를 키우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온도가 떨어지므로 모판에 비닐막과 나래를 씌웠다. 농장원들은 3월 중순부터 10여일동안 두둑과 두둑사이에 배추모를 옮겨심었다가 4월 하순과 5월 상순에 수확하였다.

오이와 도마도종자는 1월 상순에 2시간정도 물에 담그었다가 건져서 싹이 80~90% 튼 다음 모판에 심었다. 그리고 40일동안 키운 모를 두줄로 심고 병해충에 의한 피해방지대책을 세웠다.

오이수확은 5월 상순부터 6월 중순까지 하였고 도마도수확은 6월 상순부터 7월 상순까지 하였다.

부루는 모를 키워 3월 중순에 오이와 도마도포기사이에 심었다. 수확은 4월 상순부터 5월 중순까지 하였다.

쑥갓씨앗은 2월말에 오이와 도마도포기사이에 심었다가 3월말부터 4월말까지 수확하였다.

농장원들은 이렇게 많은 시금치와 배추, 오이, 도마도, 부루, 쑥갓을 생산한데 이어 또다시 오이모를 옮겨심었다. 이때 역시 모판에서 10여일 키운 모를 포전에 옮겨심었다. 이 시기 기온이 높으므로 통풍조건을 지어주고 비배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다가 9월에 수확하였다. 오이를 수확한데 이어 또다시 배추모를 옮겨심었다. 수확은 11월에 하였다.

농장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년중 이 온실을 비우지 않고 남새를 심어 생산을 더욱 늘이였다. 토벽식온실과 궁륭식온실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많은 남새를 생산하였다.

이 농장의 경험은 실리를 담보할수 있는 다모작재배방법을 받아들일 때 온실남새생산을 늘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김창길

넘치는 기쁨

밝게 웃는다.

수도시민들에게 공급할 도마도를 또 한차 실어보내게 된 기쁨에 넘쳐 온실남새재배공들이 환하게 웃는다.

어제는 육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에게 오늘은 또 수도시민들에게…

알알이 붉게 익은 도마도를 고르고골라 수도시민들에게 가득히 실어보내는 재배공들의 얼굴마다에 로동의 보람, 생의 행복이 한껏 실렸다.

얼마나 정성다해 가꾼 열매이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더 많은 온실남새를 생산하기 위해 바쳐온 땀과 열정 그 얼마이던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도시거름과 닭배설물들을 실어들이고 농장양어장과 주변구역들의 오수정화장바닥감탕을 말끔히 파내며 수천t의 질좋은 거름을 마련한 그들이였다.

한겨울의 강추위에 시금치잎이 얼세라 나래와 박막을 씌워주고도 마음놓이지 않아 뜨거운 물을 담은 바께쯔를 들고 달려나온 재배공들, 농장자체로 효능높은 농약을 만들어 병해충피해를 미리막고 풀 한대 없이 말끔히 김을 매주며 그들이 바친 정성은 그대로 알찬 열매로 주렁져 올해에도 농장에서는 배추와 부루, 쑥갓, 오이 등 수천t의 남새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었다.

남모르는 그 수고를 우리 원수님께서 헤아려주시며 높이 치하해주실 때 재배공들모두가 포기마다 주렁진 열매를 어루쓸며 눈물을 쏟았다.

그날의 격정의 눈물, 맹세의 눈물이 스미여 열매는 더욱더 붉은것인가.

상자마다에는 붉은 도마도가 가득히 차넘치고 재배공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 받들어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더 많이 보내줄 충정의 맹세가 넘쳐흐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장은영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7일 김윤선 오사까조선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숭고한 사랑으로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주시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재일동포자녀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인생의 값높은 영광을 받아안은 공로자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일성상계관인인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시인 문기창과 로력영웅인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로동자 조태형에게 일흔돐생일상을 보내시였다.

일찌기 부모를 잃고 길가의 막돌처럼 버림받았던 문기창은 재능의 작은 싹도 찾아 거목으로 키워주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속에 주체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재능있는 시인으로 자라났다.

오직 당을 따라 충정의 한길을 걸어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 《불타는 마음》, 《사랑의 세계》, 《나의 조선아》, 《청춘과 용감성》을 비롯한 많은 가사들을 창작하여 시가문학발전에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가 창작한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인민의 심장속에 뿌리박은 우리 당의 성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온 나라에 더 높이 울리도록 하여주시며 시인으로서 누릴수 있는 최상의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해방전 가난한 농사군의 아들로 태여난 조태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펴고 기술을 배웠으며 흥남비료공장(당시)에서 선반공으로 보람찬 로동의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불타는 정열로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였으며 많은 공구와 지구, 장비들을 자체로 제작하고 중요생산설비의 부속품들과 고압설비부분품들을 제때에 가공보장한것을 비롯하여 주체비료생산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값높은 삶을 누려온 문기창과 조태형의 가족, 친척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국가건설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사회주의협동벌을 들끓게 한 위력한 정치사업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와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영농전투를 추동하는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특히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한해 농사의 성과를 크게 좌우하는 모내기전투에서 높은 실천력을 발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 모내기전투과정을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분출시키기 위한 드세찬 사상공세의 과정으로 전환시키였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을 비롯하여 도, 시, 군급기관의 수많은 일군들이 도안의 농장들에 달려나가 농업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들은 농업근로자들의 가정들에 들어가 성의껏 준비해온 생활필수품들도 안겨주고 생활도 같이하면서 그들을 모내기전투에로 적극 불러일으키였다. 또한 분조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면서 모내기전투에서 집단적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

자강도당위원회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의 연설에서 밝혀주신 숭고한 뜻대로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들끓는 농장벌에 나가 화선식선전선동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투쟁의 불, 열정의 불을 달아주었다.

도당일군들을 비롯한 수천명의 일군들은 현지에서 기동적으로 작전하고 실천하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심리와 준비정도, 전투의 정황에 맞는 사상공세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댔다.

도안의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의 작가, 기자, 미술가들도 농업근로자들의 창조의 숨결이 약동하는 포전에서 창작 및 취재활동을 벌리고 혁신자소묘 및 영예사진촬영을 비롯한 직관선동과 경제선동을 특색있게 진행하여 대중의 열의를 부쩍 높여주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포전경제선동을 잘하고있는 어느 한 구역안의 농장일군들을 소개한 록화편집물을 해당 일군들에게 보여주고 시안의 농장포전들에 붉은기와 이동속보판, 구호들을 전개하여 모내기전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또한 강남군과 력포구역을 비롯한 농촌지역들에 경제선동력량을 집중하고 화선식선전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림으로써 모내기가 제철에 질적으로 다그쳐지도록 하였다.

곽산군당위원회 일군들도 들끓는 포전들에 달려나가 농업근로자들에게 당의 농업정책을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해설해주면서 정치사업을 패기있게 벌리였다. 군당위원회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과 일을 같이하면서 그들이 농사의 주인,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모내기전투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이끌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들을 비롯한 당초급선전일군들과 군기동예술선동대의 역할도 높여 포전마다에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퍼지도록 하였다.

재령군당위원회에서는 음향증폭식메가폰을 비롯한 각종 선전선동수단들을 그쯘히 갖추어놓고 포전집중정치사업을 실효성있게 벌리는 삼지강협동농장의 경험을 군안의 농장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군당위원회 일군들은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아래에 내려가 정황에 맞는 선전선동방법도 배워주면서 협동농장들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이 농업근로자들을 모내기전투에로 능란하게 이끌어나가도록 하였다.

허천군당위원회에서는 매일매일의 모내기전투실적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뒤떨어진 단위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방법론있게 벌려나갔다. 창조적사색을 앞세우면서 일군들이 널리 활용해나간 긍정감화교양에 의하여 앞선 단위들을 따라 뒤떨어진 단위들도 서로마다 경쟁적으로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갔다. 결과 모내기전투의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뛰여오르게 되였다.

이밖에도 평안북도당위원회와 함경남도당위원회, 송림시당위원회, 천내군당위원회, 은천군당위원회, 봉산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당조직들에서도 일군들을 작업반, 분조들에 파견하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면서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모내기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인 농업전선을 들끓게 하며 모내기전투기간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진행한 위력한 정치사업은 풍요한 가을을 마중해가는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 농업근로자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며 그들을 보다 큰 혁신과 위훈에로 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우리 나라 김수정선수

2014년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 쟁취

우리 나라의 김수정선수가 2014년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21일부터 로씨야의 까잔에서 시작된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중국, 타이를 비롯한 49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녀선수 260여명이 참가하고있다.

녀자 75㎏급경기에 출전한 김수정선수의 경기는 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훌륭한 경기성과로 어머니조국에 보답할 일념안고 경기장에 나선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신심이 넘쳐있었다.

그는 순간채기와 빠른 추기 등 특기를 잘 살려 끌어올리기에서 116㎏을, 추켜올리기에서 134㎏을 들어올려 종합 1위를 하였다.

김수정선수는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많은 관중들과 애호가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그의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한편 김효심선수는 녀자 63㎏급 경기 추켜올리기와 끌어올리기에서 각각 2위, 3위로 종합 2위를 하였다.

조중 두 나라 정부사이의 원정-권하 새 국경다리의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원정-권하 새 국경다리의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27일 평양에서 체결되였다.

우리측에서 박명국 외무성 부상이, 중국측에서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각기 자기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협정문에 수표하였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29일 9시부터 보천보홰불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2차경기가 진행된다.

김일성경기장에서는 기관차팀과 월미도팀, 평양팀과 소백수팀사이의 남자경기가, 서산축구경기장에서는 4.25팀과 묘향산팀, 압록강팀과 갈매기팀사이의 녀자경기가 있게 된다.

이날 10시부터 평양체육관에서 압록강체육단과 기관차체육단사이의 배구 남자 1급 도전경기가 진행된다.

빙상관에서는 대성산체육단, 평양철도국체육단, 장철구평양상업대학체육단들사이의 빙상휘거 성인급, 청년급경기들이 벌어진다.

【조선중앙통신】

조국통일의 창창한 미래를 앞당겨오는 력사의 발걸음

오늘 력사의 엄혹한 시련과 풍파속에서도 우리 조국이 비약의 령마루에로 힘차게 달음쳐오르고 겨레의 조국통일위업이 꿋꿋이 전진하고있는것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있기때문이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용약 일떠선 우리 천만군민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꿈과 리상의 높이, 드세찬 진군속도와 젊음으로 용솟음치는 억센 힘, 선군조선의 위용을 자랑높이 과시하고있다.

사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겨레가 전진해온 그 나날들은 장구한 민족사에 비해볼 때 그야말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길지 않은 나날들에 격동적인 사변들은 얼마나 많았고 추억은 또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시는 불면불휴의 선군장정은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절세의 위인만이 수놓을수 있는 영웅서사시적행로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성대히 경축하는 뜻깊은 열병식장의 높은 연단에서 태양조선의 앞날을 축복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은 전체 조선민족을 부강조국건설과 통일애국성업에로 부르는 절세의 애국자의 심장의 호소였다. 그 감격적인 순간 온 겨레는 탁월한 예지와 숭고한 민족애, 비범한 령도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뵈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결사의 신념안고 헤치신 파도사나운 최대열점지역에로의 바다길이며 최전연초소들을 찾아 넘고넘으신 그 많은 험산준령들은 그이의 견결한 조국수호, 조국통일의지를 길이길이 전하고있다.

판문점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시찰이 전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판문점은 적아가 총부리를 맞대고 예리하게 대치하여있고 화력밀도가 너무도 조밀한 그야말로 최전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판문점에 력사의 발걸음을 내짚으신 그때로 말하면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발광적인 북침전쟁연습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된 때였다.

하지만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우리의 원수님께서는 그런 때에 태연자약하게 판문점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놀라움과 격정 그리고 긴장감으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있는 판문점초병들의 가슴을 가볍게 치시며 싸움군들처럼 생겼다고, 자신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찾아오니 긴장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판문각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시였다.

깜짝 놀란 판문점초병들이 황급히 만류해나섰지만 그이께서는 마치 소풍나오신것처럼 거침없이 판문각로대로 나가시여 코앞의 적진을 굽어보시였다. 그런데 매일과 같이 이리떼처럼 욱실거리던 적들이 한놈도 보이지 않았다. 헌병감시초소의 험악한 눈총과 숱한 총구들이 교차를 이루며 집중된 판문점회의장구역에 한놈의 적도 보이지 않는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였다. 적진이 예상외로 숨죽은듯 고요한것이 의아하신듯 부대지휘관에게 오늘 왜 적들이 보이지 않는가고 물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마 적들은 저들이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벌리는 시기에 자신께서 판문점에까지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것이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이윽하여 판문각을 나서시는길로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를 돌아보시면서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와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우리 함께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할 의지를 다시한번 가다듬는 의미에서 친필비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였다.

이어 통일각을 돌아보시고나신 후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는 판문점회의장구역에서 전투근무를 수행하는 경무관들과도 함께 기념사진을 찍겠으니 그들을 모두 철수시켜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다. 경비성원들을 다 철수시키다니…

이런 생각으로 부대지휘관은 황급히 현재 군인들이 자기 초소에서 전투근무를 수행하고있기때문에 아무래도 기념사진을 두차례에 걸쳐 찍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일없다고, 최고사령관이 나왔는데 누가 감히 덤벼들겠는가고, 판문점은 오늘 최고사령관이 지켜주겠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근무를 서고있는 경무관들을 다 데려오라고 이르시였다. 뢰성같은 그 말씀을 들으며 판문점초병들은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머리시에 형상된 백두산호랑이의 따웅소리가 귀전에 울려오는것 같아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판문점초병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찍으신 뜻깊은 기념사진은 백두산호랑이와도 같은 선군조선의 최고령도자의 과감하고 결단성있는 위인상이였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세계언론들은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는 결단성과 담력에 있어서 두차례나 제국주의강적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과 총 한방 쏘지 않고 초강경으로 조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안아오신 김정일국방위원장 그대로이시라고 하였다.

온 겨레는 백두산호랑이의 단호한 기상으로 신화속의 거인같이 세계를 굽어보시며 오직 곧바로만 전진하고 돌파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선군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불꽃튀는 대결전은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선 핵포기》를 부르짖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해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말살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며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그들의 책동은 갈수록 우심해지고있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예측할수 없는 위험천만한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들의 전쟁도발소동을 초강경대응으로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수호전을 필승의 한길로 이끌고계신다. 핵에는 핵으로, 미싸일에는 미싸일로, 이것이 탁월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답이다.

미제와의 전대미문의 대결전에서 우리는 주동을 확고히 틀어쥐고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고있으며 원쑤들은 공포에 질려 갈팡질팡하고있다. 백두의 천출명장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무비의 담력, 강철의 기질앞에 적들은 전률하고있으며 우리 겨레는 통일의 신심과 의지를 백배로 간직하고있다.

선군의 한길로 이 조선을 이끄실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헤쳐가시는 선군혁명의 강행군길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은 무적의 전투대오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으며 조국통일위업완성의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고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 인민의 희망, 강국의 희망이 꽃펴나는 내 조국의 장쾌한 모습에 온 세계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한세기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하며 렬강들의 각축전에 무참히 짓밟히던 우리 민족이였다. 식민지망국노가 되여 세계지도에서 빛마저 잃었던 민족수난의 어제와 세계정치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오늘은 얼마나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절대적이며 그이의 령도따라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는 나날이 억세여지고있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숭고한 덕망, 탁월한 령도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드팀없이 관철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있기에 우리 인민은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 종지부를 찍고 이 땅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성큼성큼 내짚으시는 력사의 발걸음속에 환희의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허 영 민

로씨야고통련, 재유럽동포들 공동선언발표 14돐을 기념

가장 현실적인 평화통일방안

6.15공동선언발표 14돐에 즈음하여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가 14일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기념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임에는 로씨야고통련 성원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김칠성 로씨야고통련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된 때로부터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면서 이 나날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이 얼마나 정당하고 실천적인 통일강령인가를 절감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어 그는 조국통일3대헌장과 6.15공동선언의 내용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안향진 로씨야고통련 부위원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최근년간 남조선당국의 반통일, 외세의존정책으로 북남관계가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이런 때일수록 동포들이 해외에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동포들은 통일주제의 노래들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6.15를 뜻깊게 기념하였다.

* *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에 의하면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4돐에 즈음하여 6.15공동선언실천해외측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6.15유럽지역위원회)가 14일 도이췰란드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6.15유럽지역위원회 상임대표 리지숙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의장 림민식을 비롯한 동포인사들이 《박근혜의 통일정책의 문제점》, 《〈세월〉호참사와 남조선사회의 문제점》, 《조선반도정세분석》 등의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결의문이 랑독되였다.

결의문은 유럽지역 동포들은 6.15공동선언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민족평화통일방안임을 다시한번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통일문제를 풀어나갈 때 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우리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확고하고 명백한 진리를 외면하고 남조선당국은 외세에 매달려 공조를 웨치며 《북핵페기》망발만 되풀이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결국 남조선통일부는 《불통부》라는 명칭이 맞으며 《신뢰프로세스》가 아니라 《불신프로세스》라고 해야 옳을것이라고 조소하였다.

박근혜가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모든 전쟁연습을 중단하며 민간통일운동을 보장하고 《5.24조치》를 해제할것을 요구하였다.

결의문은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국애족단체들과 굳게 련대하여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괴뢰서울행정법원은 남조선의 초, 중, 고등학교 교원들을 망라한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로조로 판결하고 그의 합법적지위를 박탈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괴뢰패당의 이러한 만행은 신성한 민주교단에 대한 교살행위이며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고 《유신》독재를 되살리려는 극악한 반민주적망동이다.

전교조로 말하면 1989년에 결성되여 괴뢰패당의 악랄한 파쑈탄압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여 1999년에 합법적인 로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고 지난 15년간 남조선에서 교육운동과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온 진보적인 교육단체이다.

특히 전교조는 괴뢰보수패당의 방해책동속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민족의 우수성과 옳바른 력사관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통일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활동을 적극 벌려왔으며 북남교육자들사이의 련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헌신해왔다.

세상을 경악케 한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녀학생살해사건과 굴종적인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의 앞장에는 언제나 전교조가 서있었다.

이러한 전교조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야만적으로 탄압하던 괴뢰패당은 이번에 법외로조로 판결하고 그의 모든 활동을 법적으로 전면금지시키였다.

민족의 밝은 미래를 꽃피우는 교육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워주며 온갖 교육조건과 생활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과 초보적인 교육의 권리와 인간의 자유마저 무참히 유린당하는 남조선의 비극적현실은 민족의 미래가 과연 어디에 있으며 괴뢰패당의 파쑈폭정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는 전교조에 대한 괴뢰패당의 부당한 판결을 파쑈의 총칼로 신성한 민주교단을 짓밟는 반인민적, 반민주적폭압으로, 자라나는 후대들을 민족의 참된 역군으로 키우려는 교육자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진보세력을 말살하려는 파쑈적망동으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불의가 정의를 짓밟고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는 전대미문의 파쑈통치를 바로잡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전교조의 활동은 남조선의 각계층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전교조를 《종북의 심장》이니, 《내부의 적》이니 뭐니 하고 악의에 차서 헐뜯으며 가혹하게 탄압하였을뿐아니라 끝내는 괴뢰법원을 내세워 비법화하는 망동을 부렸다.

이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의와 진리를 가르치는것도, 민주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교육을 주는것도 다 반대하는 현 괴뢰패당의 반동적정체를 적라라하게 드러낸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전교조를 사수하느냐 마느냐 하는것은 사회의 민주화를 쟁취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신성한 교단을 짓밟으며 참다운 교육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파쑈무리들의 반민주적인 폭거를 반대하고 전교조를 지켜내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총궐기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회의 민주화와 반외세, 평화와 자주통일을 지향하며 참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전교조의 활동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주체103(2014)년 6월 27일
평 양

공동선언에 대한 《존중》인가, 우롱인가

남조선에서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할데 대한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6.15공동선언발표 14돐을 맞으며 각지에서 벌어진 다양한 기념행사들은 공동선언리행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지향과 열망을 그대로 대변한것이였다. 남녀로소를 막론하고 누구나가 한목소리로 터친 심중의 고백, 그것은 《남과 북이 다 함께 사는 길은 6.15공동선언실천뿐》이라는 웨침이였다.

남조선 각계의 6.15공동선언지지분위기에 떠밀리운 괴뢰들은 마치도 저들이 공동선언리행과 북남대화에 관심이 있는듯이 노죽을 피우고있다. 지난 15일 《새누리당》은 통일문제의 자주적해결을 천명한 6.15공동선언정신에 대한 《존중》과 《대화협력의 남북관계 조성》을 제창해나섰다. 괴뢰국회 의장으로 된 정의화도 북남사이의 《국회회담》에 대해 운운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민심과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서푼짜리 요술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그들스스로가 보여주었다.

《새누리당》패거리들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존중》을 떠든 자리에서 그 누구의 《전향적인 자세》를 운운하면서 기만적인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즈덴선언》의 추진에 대해 횡설수설해댔다. 정의화도 《세월》호참사로 묻혀버린 《통일대박론》과 《드레즈덴선언》에 빛을 주기 위해 《국회회담》이 필요하다고 떠들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현 집권자의 반공화국대결정책실현을 위해 그 무슨 《존중》도, 《회담》도 필요하다는것이다. 괴뢰들의 진속은 이렇게 시꺼멓다.

현 남조선집권세력에게는 애당초 북남공동선언리행에 대한 사소한 관심이나 의지도 없다. 괴뢰통일부가 이번에 6.15민족공동행사를 위한 북남단체들사이의 실무접촉마저 차단한것이 과연 공동선언을 존중해서 한 처사인가. 그것을 6.15공동선언의 존중과 리행을 위한것으로 볼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반역패당의 골수에는 오직 체제대결야망, 《흡수통일》흉심만이 꽉 들어차있다. 괴뢰들이 지난 4월 남조선에 기여든 미국상전 오바마와 함께 이른바 《통일대박론》과 《드레즈덴선언》을 바탕으로 한 그 무슨 《통일구상의 공유》를 운운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폭로된바와 같이 《드레즈덴선언》이란 지난 3월 도이췰란드를 행각한 박근혜가 드레즈덴에서 《인도주의적문제해결》이니,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기반구축》과 《동질성회복》이니 하며 내놓은 《대북3대제안》이라는것이다. 당시 박근혜는 《흡수통일》로 이루어진 도이췰란드의 통일방식이 자기의 《통일모델》이라고 력설하면서 《먹히우고 먹어버린 통일》을 조선반도의 《통일》로 이어나갈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이렇게 삐여져나온 《드레즈덴선언》이라는것의 범죄적본색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하기에 여론들은 박근혜가 《드레즈덴선언》을 통하여 자기의 《통일론》이 결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리념적흡수통일》이고 경제적인 《일방적흡수통일》이며 군사력에 의한 《점령통일》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공식 선포하였다고 신랄하게 비난하고있다.

괴뢰들이 떠들어대는 《신뢰프로세스》라는것도 마찬가지이다. 《신뢰》의 간판밑에 누구를 변화시켜 핵포기에로 유도하며 그렇게 되면 그 무슨 《경제협력》을 한다는 허망한 《신뢰프로세스》라는것은 그 어원자체가 랭전시기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붕괴시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들이 만든 《헬싱키프로세스》에서 따온것이다.

박근혜자체도 《신뢰프로세스》가 《결코 유화책이 아니》며 미국과의 《동맹에 기초한 군사적억지력을 바탕으로 한것》이라고 념불외우듯 하고있다. 괴뢰들은 《신뢰프로세스》의 기본방점은 《선 변화》이며 종착점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이라고 떠들어대고있는가 하면 《신뢰프로세스》가 북에 대한 《압박》과 《유인》의 《두길전략》이라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간판은 그 누구를 유혹해보려고 《신뢰》를 내걸었으나 그뒤에는 온통 누구를 《용납치 않겠다.》, 《원칙을 지키겠다.》, 《응징하겠다.》는 대결적폭언만 뒤따르는것이 남조선당국이 내건 《신뢰프로세스》이다. 오죽했으면 미국상전까지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예상외로 강경한데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고있겠는가.

결국 《신뢰프로세스》는 본질에 있어서 북남공동선언들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리명박역도의 《비핵, 개방, 3 000》보다 더 악랄하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신뢰프로세스》를 가리켜 《불신프로세스》, 《대결프로세스》라고 격분에 넘쳐 야유, 조소하고있는것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보는바와 같이 남조선집권세력이 떠들어대는 《신뢰프로세스》나 《드레즈덴선언》이라는것은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할데 대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반통일체제대결론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신뢰프로세스》나 《드레즈덴선언》따위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박근혜패당이 악랄한 체제대결론을 내들고 그 무슨 《존중》과 《대화협력의 남북관계》를 뇌까리는것이야말로 남조선민심에 대한 모독이고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다.

본사기자 리 효 진

《만경봉-92》호 입항금지조치의 해제를 주장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의하면 총련 교또부본부 대표들이 17일 일본적십자사 교또지사를 찾아가 《만경봉-92》호의 입항금지조치 해제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지금 많은 동포들이 《만경봉-92》호의 일본입항을 간절히 바라고있다고 말하였다.

비행기편으로 조국을 방문하는 동포들의 재정적부담이 크고 특히 고령자들이 고통을 겪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만경봉-92》호는 재일동포들을 조국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들은 지난 5월말에 진행된 조일정부간 회담의 정신에 따라 인도주의적견지에서 《만경봉-92》호가 일본에 입항할수 있도록 일본적십자사 교또지사가 본사에 제의할것을 요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괴뢰해병대부대들 조선 동,서해일대에서 침략전쟁연습 감행

25일 남조선의 괴뢰해병대호전광들이 조선 동, 서해일대에서 6.25의 그날을 방불케 하는 침략전쟁연습을 발광적으로 감행하였다.

괴뢰1해병사단은 경상북도 포항과 경주 등지의 해안지역에서 비상출동점검훈련을 실시하였다. 괴뢰호전광들은 미제가 리승만괴뢰를 사촉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전쟁의 불을 질렀던 그 시간에 맞추어 부대가 보유한 모든 화력타격수단들을 신속히 기동시키며 발광적으로 돌아쳤다.

한편 이날 백령도를 비롯한 조선서해의 5개 섬에서도 괴뢰해병대가 북침전쟁연습에 열을 올렸다. 호전광들은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벌려놓고 화약내를 풍겼다.

뿐만아니라 섬주민들을 전쟁개시를 가상한 대피훈련에 내몰며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괴뢰군부패당의 광란적인 북침전쟁연습소동은 그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날뛰는 전쟁미치광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미쳐날뛰는 파쑈경찰 인민들에 대한 탄압에

국제무대를 들었다놓은 조선의 음악신동

유별미학생 국제피아노축전에서 대절찬

어머니당의 후대사랑에 떠받들려 음악신동으로 이름떨치고있는 유별미학생이 제2차 그라두스국제피아노축전에서 대절찬을 받았다.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축전에는 우리 나라의 유별미학생을 비롯하여 로씨야,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등 7개 나라의 이름있는 연주가들과 전도유망한 나어린 연주가들이 초청되였다.

유별미학생은 17일과 20일 두차례의 출연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작곡가들이 창작한 명곡들을 높은 예술적기교로 훌륭히 연주하여 관중의 경탄을 자아냈다.

특히 피아노전문가들은 이 축전에 조선이 처음 참가하였는데 13살 난 나어린 연주가가 축전무대를 들었다놓았다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라두스국제피아노축전 예술리사장인 교수 마르틴 옙센은 이번에 세계적으로 여러차례 두각을 나타낸 우리 나라의 유별미학생에게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축전에 초청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축전조직위원회에서는 청소년연주가들가운데서 유별미에게 기본초점을 두었다.

기대했던바그대로 별미는 이번에 황홀한 연주로 관중을 매혹시켰다.

흔히 피아노기교가 뛰여난 연주가들에게는 음악성이 상대적으로 약한데 별미는 기교도 높고 음악성도 매우 풍만하며 연주도 아름답고 개성적인것이 특징이다.

별미의 참가로 우리 축전무대가 한층 더 아름다와지고 인기가 올라가게 되였다.

다음 축전무대에서 다시 만나기 바란다.

핀란드음악아까데미야 부교수 발레리아 레쟌은 동영상열람싸이트를 통하여 별미의 피아노연주모습을 많이 보았다, 동영상열람건수가 상당히 많고 또 그 동영상들에 대한 수백건의 감상글이 오른데 대해 놀랐다, 오늘 드디여 별미의 매력적인 연주를 직접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로씨야 그네씬명칭 음악아까데미야 교수 베라 노시나는 유별미학생의 뛰여난 연주에 감탄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이는 어리지만 천성적인 재능이 있고 첫걸음부터 정확하면서도 수준있는 전문교육을 통해 탄탄한 기초를 쌓았다는것이 알린다.

앞으로 별미가 계속 비약하여 세계적인 연주가로 우뚝 서게 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연주가 끝난 후 어린 나이에 어떻게 피아노를 그렇게 잘 타는가고 묻는 관중들에게 유별미학생은 《어린이들을 왕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다.》라고 긍지높이 대답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였다.

국제무대에서 나날이 이름떨치는 유별미학생의 성과는 당의 인재양성정책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조선중앙통신】

과학기술중시와 일군들의 관점문제

명학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차넘치고있는 오늘 과학기술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과 태도는 생산장성의 근본열쇠로 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매달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명학탄광 일군들의 사업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명학탄광이 지난해보다 로력과 설비, 자재, 부속품을 더 보장받은것은 없다.

하다면 석탄생산장성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기술자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을 발동하여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 탄광일군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과 태도, 사업기풍이 주요한 작용을 하였다.

탄광의 책임일군들은 거의나 임명된지 몇년 안되였거나 새로 배치되였다. 그런데로부터 탄광에 대한 파악도 경험도 부족하였다.

하지만 일군들모두가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할 무거운 짐이 자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분발하였다.

일군들은 최근 몇년동안의 석탄생산분석자료를 놓고 여러차례에 걸쳐 협의회도 하고 막장에서 탄부들과 함께 석탄을 캐는 과정에 중요한 문제점을 찾게 되였다. 그것은 석탄생산에서 거의나 남들의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있는것이였다. 그러다나니 석탄증산이라는 말은 외우면서도 늘 남의 뒤를 따라갈수밖에 없었다.

(남의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친다면 우리 기술자들은 어디에 필요한가.)

과학기술에 대한 옳바른 관점, 바로 여기에 석탄증산의 예비가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정철식, 김경선, 리광욱동무를 비롯한 탄광의 일군들은 새 기술도입소 소장 리호천동무를 비롯한 기술자, 기능공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관성식콘베아를 새롭게 받아들일 때의 일이다.

기술자, 기능공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쳐 자체의 힘으로 관성식콘베아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설비의 중량과 이러저러한 부족점으로 하여 막장에 도입할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손맥을 놓고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때 일군들은 기술자들로 앞선 단위들에 대한 참관사업도 조직하고 새 기술자료들과 과학기술도서들을 안겨주면서 그들의 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그리고 항일혁명투사들처럼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낸 강의한 혁명정신을 지닌다면 오늘의 조건에서 못해낼 일이 무엇인가고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신심을 가지고 분발해나선 기술자, 기능공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경량화된 관절식밀개장치를 완성하여 석탄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였다.

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자, 기능공들과 함께 막장에 들어가 탄부들과 함께 직접 기계를 다루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가지 좋은 의견들을 듣게 하였다. 그 과정에 기술자, 기능공들은 기발한 착상으로 관성식콘베아를 다루기 편리하게 완성하면서 보다 경량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되여 로력은 2배로 절약하면서도 석탄생산은 1.5배로 올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군들은 3대혁명소조원들을 믿고 큼직큼직한 기술혁신과제들을 맡아 해제끼도록 적극 떠밀어주어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갔다.

전차에 새로운 제동장치를 받아들일 때였다.

종전의 제동장치에서 불합리한 점을 찾은 일군들은 3대혁명소조원들과 탄광의 기술력량이 지혜를 합쳐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기술혁신과제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전차운전공들을 만나 제동장치를 동작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자기들이 직접 달리던 전차가 제동한 때로부터 얼마만한 거리를 더 가는가를 측정해보았다. 또 정황이 생겼을 때, 경사진 막장으로 내려갈 때 전차이 동속도와 정지때의 움직임을 관찰한 자료들을 알려주면서 기술집단과 무릎을 마주하고 진지한 토의를 거듭해나갔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새로운 제동장치를 완성할수 있게 하였다.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새로운 제동장치는 종전보다 운전조작이 편리해지고 설비의 안전성, 기동성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어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탄광의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이 합심하여 도입한 발파가스중화제도 일군들의 깊은 관심속에 연구완성되였다.

발파가스중화제를 받아들임으로써 탄광에서는 발파가 끝난 후 막장진입시간을 단축할수 있게 되였으며 그만큼 굴진속도를 높일수 있게 되였다.

이밖에도 탄광에서는 공기버팀대에 의한 오가드릴천공기, 수평적재기를 비롯하여 많은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여 석탄증산에 이바지할수 있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새 기술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기술자, 기능공들을 이끌어주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어주는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 확실히 본받을 점이 있다.

특파기자 리 혁 철

미국은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주범, 세계평화의 교란자

전범자들은 함부로 입질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에서 집권계층들이 저마끔 나서서 우리의 있지도 않는 《위협》설을 계속 류포시키고있다. 어제는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오늘은 국무장관이 다른 나라들을 돌아치면서 저마끔 《북조선의 위협》에 대해 광고하고있다.

며칠전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잔 라이스가 연락에 나서서 한바탕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그는 《북조선의 도발에 더 잘 대처할수 있게 일본, 남조선과보다 긴밀한 안보관계를 추구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가 엄중히 위협당하고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초긴장상태에 처하게 된 책임이 저들이 아닌 다른 누구때문에 빚어지고있다는것이다.

물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날강도적인 황당한 궤변에 우리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조선반도에서 이미 한차례의 전쟁을 도발한 전범자들이 감히 자주와 존엄을 위해 시종일관 투쟁하고있는 정의의 수호자들에게 당치도 않은 《도발》감투를 씌워보려고 하고있는데 대하여 수수방관할수 없다.

침략자들이 오늘까지도 조선전쟁도발의 진상을 한사코 은폐하고있을뿐아니라 우리 공화국을 《도발자》로 매도하면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광분하고있는 조건에서 그들이 우리 나라를 먹어보려고 어떻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왔는가 하는 침략력사를 다시금 까밝히지 않을수 없다.

백수십년전부터 미국은 아시아대륙의 관문인 조선을 침략하여 저들의 지배하에 넣는것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웠다.

미국지배층은 1845년 2월에 《조선개방안》을 국회에 상정시키고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침략선 《셔먼》호의 침입을 계기로 조선침략의 길에 나선 미국은 만경대인민들과 평양성군민의 투쟁에 의해 참패를 당한 후에도 《쉐난도아》호와 《챠이나》호를 련이어 침입시키면서 우리 민족을 정복해보려고 검질기게 날뛰였다.

1905년 《타프트—가쯔라협정》의 체결로 일제의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를 부추기면서 장차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책동을 체계적으로 감행하여온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조선침략정책실현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1945년 9월 8일 《해방군》의 벙거지를 쓴 미군이 총 한방 쏘지 않고 남조선을 강점한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점령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서막이였다.

남조선에 진주한 미군은 단순한 강점군이 아니라 전조선을 무력으로 타고앉기 위한 침략전쟁무력이였다. 미제가 남조선에 들이민 3개 사단병력중 2개 사단은 38° 선접경지대에 배치되여 각종 포와 땅크, 현대적인 저격무기 등 최신 무장장비들을 갖추고 임의의 시각에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대기하고있었다. 미국인들자체가 《실제로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월가의 전쟁은 그의 장군들이 남조선에 발을 들이민 바로 그 순간 1945년 9월에 시작되였다.》고 자인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침략력사는 헤아릴수 없지만 조선전쟁만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전쟁은 없었다.

전쟁이 개시되기 전에 전쟁도발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와 총회들에 제기할 《기초문건》들과 《결의안》들도 미리 꾸며놓은 사실 하나만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이에 대해 1951년 6월 유엔담당 미국무차관보는 미국회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마당에서 조선문제를 《유엔에 끌고간다는것은 결정되여있었으며 어떠한것을 말하겠는가도 대략 결정되여있었다. …결의안의 골자만은 작성해두었다.》고 실토하였다.

미제에 의하여 추진된 주도세밀한 침략전쟁준비를 두고 당시 서울주재 미국특파기자는 조선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쓴 글에서 《이번 전쟁만큼 완전히 준비되여있은 일은 우리들의 력사가 시작된 이래 없는 일이였다.》고 평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제야말로 조선전쟁도발준비를 계획적으로 추진시킨 장본인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세계의 공정한 여론에 의하여 조선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도발자, 방화자들의 정체는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조선반도에서 동족대결과 상쟁의 화근을 만들고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린 장본인, 전쟁방화범인 미국은 이에 대하여 입이 열개라도 변명할수 없을것이다.

조선반도의 정세를 항시적인 전쟁접경에로 몰아간 긴장격화의 장본인, 도발자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침략자, 도발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터무니없는 《남침기습설》을 떠들며 세상사람들을 기만하였으나 인류의 량심과 정의를 결코 속일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1960년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1970년대 판문점사건과 그후 서해무장충돌사건, 연평도포격사건 등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초긴장국면에로 몰아넣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군사적대결사건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하여 초래된것들이다.

미국이 떠들어대는 우리의 그 무슨 《도발》행위라는것들을 보면 자주, 자위를 귀중히 여기는 존엄높은 국가라면 어느 나라든지 응당 해야 할 권리행사이다.

인류가 우주에 위성을 쏴올리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에서 수많은 위성발사가 진행되였지만 우리의 위성발사가 《도발》로 매도되여 유엔에 상정되고 《제재결의》까지 조작된적은 없었다.

핵무기를 맨 처음 만들어내고 인류에게 실제적인 핵참화를 들씌운 특대형핵범죄자 미국이 핵시험을 단 3번 진행한 우리에 대해 유엔까지 동원하여 《제재》니 뭐니 하는것도 진짜도발자들만이 할수 있는 억지이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조선반도의 사태를 조그마한 편견도 없이 리성적으로 판단해보라.

만일 그 어느 나라든지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나라가 지난 전쟁에 참가하였던 추종국가의 병력들까지 동원하고 유고슬라비아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등 침략전쟁마다에서 악명을 떨쳤던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폭격기 《B—52》와 스텔스폭격기 《B—2A》,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최신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자국과 가까운 땅과 바다, 하늘에서 불장난을 벌린다면 이런 도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는가를.

조선전쟁의 도발자, 침략자이며 조선반도정세격화의 주범인 미제의 죄행은 절대로 감출수 없다.

미국이 있지도 않는 우리의 그 무슨 《위협》설을 내돌리는데는 그것을 내대고 저들의 군사비는 적게 들이면서 동맹국들의 인적, 물적자원을 털어내며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구축하여 주변대국들에 대한 군사전략적우세를 차지하고 기울어져가는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부지해보려는 음흉한 기도도 깔려있다. 보다 중요하게는 제2조선전쟁도발준비에 박차를 가하자는데 있다.

미국이 우리의 그 무슨 《도발》과 《위협》을 광고하는데 대하여 치솟는 울분을 금치 못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와 판가리결산을 하고야말 의지를 더욱 억세게 가다듬고있다.

리 현 도

패권유지를 노린 《위협》타령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패권을 상실하고있다는것은 자타가 공인하고있는 사실이다.

오바마정권이 이때문에 전전긍긍하고있다. 뾰족한 방책을 찾아내지 못하고있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자면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가 주구들을 바싹 끌어당겨 상전의 지위부터 공고히 하고 그들을 잘 써먹는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요란하게 벌리고있는것이 우리의 《위협》소동이다. 그것도 지난 시기와는 달리 더 자주, 더 과장하여 우리의 《위협》을 떠들어대고있다. 주구들이 우리에게서 《강한 위협》을 느끼고 저들의 책략에 끌려들어와 발을 맞추게 하자는것이다.

미지배층의 이러한 나팔통역할을 하는자들중에는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를 해먹는 라쎌도 있다.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을 21세기 패권장악의 기본전장으로 정하고있는 오바마정권은 그 지역담당인 라쎌을 내세워 요란하게 떠들게 하고있다. 얼마전 라쎌은 남조선의 어중이떠중이들을 워싱톤에 불러다놓고 우리의 《핵및 미싸일위협》을 운운하며 미국주도의 미일남조선 정보망구축과 남조선에 전개될 미싸일방위체계에 대한 공동투자에 대해 력설하였다.

보다싶이 미국은 우리의 《위협》타령을 주구규합에 써먹고있다. 파렴치성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새로운것은 없다. 판에 박힌것이다. 다른 나라의 《위협》을 떠들지 않고서는 생존할수도 없고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자리를 유지할수도 없는것이 미국이다. 전쟁을 끊임없이 벌리자고 해도, 침략적군사쁠럭들을 조작확대하자고 해도 허구적인 《위협》타령을 입에 달고 있어야 하는것이다. 라쎌이 우리의 《위협》을 떠들며 미, 일, 남조선사이에 군사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놓고 횡설수설한것은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전략실현에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을 더욱 깊숙이 끌어들이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이다.

미국은 우리의 핵포기를 대조선적대시정책,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실현의 관건적고리로 보고 어떻게 해서나 강행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있다. 그러나 그것이 닭알로 바위치기와 같은것이라는것을 오바마정권도 느끼고있다.

우리는 조선반도 남쪽과 그 주변에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숱한 핵타격수단들을 전개해놓고있으면서도 《위협》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하며 핵포기를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는 미국의 치졸한 꼬락서니를 지켜보고있다.

할수 있는껏 실컷 해보라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의 모든 반공화국책동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기때문이다.

랭전종식후 이 세계에서 못할짓이 없는것처럼 날뛰던 미국이 우리앞에서 꼼짝 못하는것을 보고 일본이나 남조선에서는 상전의 힘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뒤소리가 흘러나오고있다. 미국의 치명적약점이 여지없이 폭로되고있는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골치아픈것은 일본과 남조선이 정책적모순과 대립으로 하여 화합이 안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주구들사이의 이러한 모순을 우리의 《위협》타령으로 덮어버리고 3자사이의 군사적협력을 실현하여 결락된 힘으로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강행해보려 하고있다.

3자군사적협력을 실현하려는것은 주구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여 주요대국들을 견제하기 위한 발판을 손쉽게 마련하고 《초대국》의 지위도 부지해보려는 미국의 음흉한 술책이다.

미국은 울며 겨자먹기로 군사비를 삭감하고있다. 심각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출로가 그것밖에 없기때문이다. 반면에 중국, 로씨야 등 지역대국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있다. 미국은 불안해하고있다. 이로부터 오바마정권은 지난 시기 미국이 걸머졌던 군사적부담의 많은 몫을 일본과 남조선에 들씌우고 그 지역들을 대국들을 견제압박하기 위한 군사기지들로 꾸리려 하고있다.

앞으로 3자군사적협력이 어느 정도로 실현되겠는가 하는것은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미국이 명백히 알아야 할것은 우리의 《위협》을 아무리 요란하게 떠들어대도 잃고있는 패권적지위를 되찾을수 없다는것이다.

일본이나 남조선괴뢰들도 미국의 장단에 맞춰 전적으로 춤을 추기 저어하는것은 현실이 아닌가.

미국은 제 처지를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리 경 수

미 국 에 서 반 전 시 위

현 집권자의 대외정책에 불만

미국인들속에서 현 집권자의 대외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18일에 발표된 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과 NBC방송의 전국적인 공동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57%가 집권자가 실시하고있는 대외정책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또한 54%의 응답자들은 오바마가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최대열점지역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얼마전 인터네트홈페지에 《조선통일의 현실적방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이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때로부터 70년이 되여온다.

이 장구한 나날 조선민족은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였다.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끊임없는 비방중상과 충돌의 악순환을 초래하였으며 조선반도는 지역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열점지역의 하나로 되고있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조선분렬의 장본인, 통일을 가로막는 장본인은 외세이다.

미국은 전조선을 타고앉아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강화하여왔다. 사실 미국의 방해책동만 없었더라면 조선민족은 이미 오래전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였을것이다.

조선반도에서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합동군사연습들로 하여 위험한 군사적대결과 긴장이 더욱 격화되고있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참화는 헤아릴수 없을것이다. 군사적대결과 전쟁위험이 고조되는 속에서는 언제 가도 통일이 이룩될수 없다.

국제사회는 조선의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과연 이것이 미국이 떠드는 《인권옹호》인가

아마 세상에 미국만큼 《인권옹호》에 대해 떠드는 나라는 없을것이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있지도 않는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집요하게 걸고드는가 하면 마치도 저들이 《인권재판관》이라도 되는듯이 해마다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이 나라, 저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고있다.

올해에도 미국은 《2013년 나라별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중국, 로씨야, 꾸바, 이란 등 나라들이 《인권을 유린》한다는 억지주장을 해댔다. 그리고는 《현재 미국만큼 인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라는 없다.》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늘어놓으며 미국을 철저한 《인권옹호자》로 분칠하여나섰다. 하지만 세계도처에서 저지르는 미국의 인간살륙만행과 란폭한 인권유린행위들을 보면 인권옹호라는 말이 미국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이 파키스탄과 예멘 등 여러 나라에서 감행하고있는 무차별적인 무인기공습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미국은 찍하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인기공습을 감행하면서 그것이 《테로기지소탕》을 위한것이라고 하지만 그 피해자는 무고한 민간인들이다. 지난 11일과 12일에도 미국은 파키스탄의 북부와지리스탄지역에 무인기공습을 들이대여 16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살해하고 여러명을 부상입혔다.

파키스탄이 이번에 감행된 미국의 무인기공습이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침해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항의하였으나 미국은 막무가내로 《테로분자》들을 소멸한것이라고 우겨대고있다.

그야말로 황당한 궤변이 아닐수 없다.

지금까지 미국의 무인기공습으로 숱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는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영국의 《조사기자뷰로》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파키스탄에서만도 미국의 385차에 걸치는 무인기공습으로 2 300~3 700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생죽음을 당하였다. 미국의 무인기공습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평화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살륙행위는 명백히 인권유린행위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언제인가 미국 전 대통령 카터가 《뉴욕 타임스》에 미국에는 《세계인권재판관》으로 처신할 권리가 없다고 비난하면서 파키스탄, 소말리아, 예멘에서 미국의 무인기공습으로 민간인들이 죽고있는것이 세계인권선언 10조와 30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된다고 까밝힌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에서뿐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갖 인권유린행위를 일삼고있다.

미국이 수많은 나라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감행한 전화도청 및 전자우편절취행위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의 80여곳에 도청시설들을 꾸려놓고 불법무도한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지난해 10월 영국신문 《가디언》은 미국가안전보장국이 백악관, 국무성, 국방성의 공모밑에 35명의 외국국가수반들의 전화를 도청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 2013년 12월 5일부가 전한데 의하면 미국은 손전화위치추적방식을 통하여 세계 각곳의 일반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하루 50억건씩 수집하여왔다. 이것을 놓고 미국의 인권옹호단체인 시민자유련맹의 관계자는 미국가안전보장국의 무차별적인 도청행위에 대해 우려하면서 현실태는 《통화수단을 단절하고 동굴에서 사는수밖에 없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개탄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전화도청 및 전자우편절취행위가 철저히 인권유린행위라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는 비단 이뿐이 아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관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들에서 수감자들에게 혹독한 고문수법들을 적용하였으며 이것은 정부의 철저한 승인밑에서 감행되였다. 현재 관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에서만도 160여명의 수감자들이 갖은 고초를 다 겪고있다.

수감자들에 대한 미국의 고문만행은 명백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한 인권유린죄행이다.

미국은 다른 민족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도 가혹하게 유린하고있다. 미국의 인권유린죄행을 꼽자면 끝이 없다. 미군이 둥지를 틀고있는 곳은 공포지대, 인권의 페허지대로 되고있다. 미국의 손길이 뻗치는 곳마다에서는 국권과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있다.

묻건대 과연 이러한것이 미국이 떠드는 《인권옹호》인가.

세계는 미국이 떠드는 《인권옹호》라는것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고있다.

미국이 온갖 미사려구를 다 써가며 세계도처에서 감행하는 인권유린행위를 《인권옹호》라는 간판으로 가리우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범죄적정체는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미국의 《인권옹호》타령의 기만성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수 없고 가리울수도 없다.

본사기자 리 학 남

국제적인 난문제로 나서고있는 대기오염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려는것은 인간의 본성적요구이다. 그러나 날로 장성하는 경제발전은 지구온난화현상과 함께 대기오염이라는 생태환경파괴현상을 가져오고있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대기오염문제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세계적으로 700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대기오염을 비롯한 생태환경파괴현상을 막는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 어느 나라나 그러하지만 최근에 들어와 아시아지역에서 대기오염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있다.

지금 중국의 베이징시에서는 공기오염물질농도가 높아져 심각한 문제거리로 제기되고있다.

지난 4월 베이징시의 33개의 감시측정소들에서 심한 대기오염수준에 도달한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정부는 시민들이 건강보호를 잘할데 대해 강조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단위들이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중국뿐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의 대기오염도 국제적인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세계보건기구는 세계도시의 대기오염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서는 약 1 600개 도시들의 2008년~2013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20개 도시가 그 대상에 들어갔는데 사이다마시 우라와구가 가장 심한것으로 나타났다.

인디아의 수도 뉴델리가 발암성이 있는 대기중의 PM 2.5(미소립자상태물질)농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화석연료사용 등으로 오염물질의 농도가 기준수치를 넘는 경우가 남아시아 등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있어 건강피해가 확대될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환경을 고려한 연료를 사용하는 등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화석연료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과 함께 증대되고있는 대기오염현상은 사람들의 건강과 경제생활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부정적인 후과를 미치고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대기오염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베이징시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있다고 한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첫 3개월동안에 베이징을 찾은 외국인수는 80만명으로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실은 중국뿐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도 보편적인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이로부터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을 비롯한 생태환경파괴현상을 막기 위한 노력은 날을 따라 강화되고있다.

특히 지난 4월말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좌담회에서 새로 수정된 환경보호법을 철저히 관철하고 대기오염방지법의 수정을 틀어쥐고 진행하여 대기오염방지사업이 심도있게 진행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지난 4월말 중국에서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선전활동이 시작되였다. 올해 선전활동은 《에네르기절약 및 이산화탄소방출량감소, 록색발전》, 《종합적관리, 연무방지 및 통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게 된다.

《생태문명을 힘있게 추진하여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의 선전활동은 보도취재그루빠를 조직하여 《에네르기절약 및 이산화탄소방출량감소와 대기오염의 방지》를 중점에 놓고 유관지역에 내려가 취재선전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

한편 제12차 5개년계획에서 에네르기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방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표의 집행과 완성을 촉진하고 중점적인 분야와 지역의 대기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한다.

인간의 생존과 사회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는 대기오염현상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것이다.

본사기자

폭력과 극단주의를 배격할것을 강조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23일 외교석상에서 폭력과 극단주의를 배격할것을 이슬람교나라들에 호소하였다.

그는 이슬람교의 원쑤들이 이슬람교도들사이에 불화를 조성하려고 꾀하면서 신앙의 차이를 악용하여 그들을 폭력에로 선동하고있다고 말하였다.

폭력과 극단주의는 이슬람교도들의 배척을 받고있다고 강조하고 그는 이슬람교나라들은 선린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협조 호소

피지대통령 라투 에펠리 나일라티카우가 16일 한 연설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제적인 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그로 하여 바다물면이 높아지며 사막화가 촉진되고 식량안전이 위태로와지고있는것 등은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최상의 방도들을 토의하고 다무적협조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반마약투쟁 강화

중국에서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부패와 타락의 길로 이끄는 마약범죄와의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길림성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2 099건의 마약범죄를 적발하고 1 988명의 밀수업자들을 체포하였다. 이 기간 운남성에서도 1 177건의 마약범죄를 색출하고 3t 338kg의 마약을 몰수하였으며 1 274명의 범죄자를 구류하였다.

위성발사 계획

이란에서 새로운 위성을 발사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나라에서는 현 이란년도말에 《나히드》로 명명된 국내산 위성을 발사할 준비를 완료하게 된다고 한다.

경제장성전망

볼리비아에서 올해 경제가 5.7%이상 장성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22일 이 나라 중앙은행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항능력확장노력

스리랑카에서 함반토타항에 저장시설들을 새로 건설하였다. 14개의 탕크들로 이루어진 이 시설에 8만㎥의 각종 연료와 가스를 저장할수 있다고 한다. 22일 이 나라 대통령이 저장시설완공과 관련한 행사에 참가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자연피해

중국에서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21일현재 광서장족자치구에서는 큰물로 2명의 사망자가 나고 2 341명이 안전한 곳으로 긴급대피하였으며 6 430㏊의 농경지가 침수되였다. 피해자수는 11만 8 700명에 달하였다.

호남성에서는 5 900여명이 큰물피해를 입었으며 6 000여칸의 살림방들이 파괴되였다. 강서성과 복건성에서도 폭풍과 흙사태로 인명피해가 나고 교통이 마비되였으며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한편 중국 감숙성에서도 최근 우박을 동반한 폭우피해를 입었다.

18일부터 폭우가 들이닥치고 큰물이 나 2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행방불명되였다. 피해자수는 총 8만 6 75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현지에서 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도이췰란드에서

도이췰란드의 서부지역에서 최근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와 우박을 동반한 폭풍으로 6명이 사망하고 많은 건물들이 파손되였다. 또한 비행기운행이 지연되고 일부 철길구간이 페쇄되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브라질에서

브라질의 빠라나주에서 최근 무더기비가 내려 많은 피해를 입었다. 9일현재 9명이 죽고 3 650명이 소개되였다. 또한 5 000여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교속도로들이 끊어졌으며 5만 1 418명의 피해자가 났다. 피해지역들에서 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필리핀에서

필리핀의 마긴다나오주에서 최근 계속되는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고있다. 폭우로 18일현재 12개의 도시가 물에 잠기고 3만 5 000여명의 주민들이 소개되였다. 정부에서 긴급구제조치를 취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벌가리아에서 큰물피해

신경세포를 재생하여 손상된 척수를 치료

어느 한 나라의 연구집단이 하반신이 마비되는 척수손상시 환자몸안에서 신경세포를 재생하여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

연구집단은 척수가 손상되였을 때 신경세포의 근원으로 되는 신경줄기세포가 그 주변에 모인다는것을 주목하였다.

척수가 손상되였을 때 신경줄기세포는 《신경교세포》라는 다른 세포로 되는데 이것을 강제로 신경세포로 성장시키면 신경회로가 회복되여 치료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연구사들은 쥐의 척수를 절반정도 손상시킨 다음 그 부위에 특수한 단백질을 주입하여 신경줄기세포가 신경세포로 되도록 하였다. 결과 그 쥐는 거의 자연스럽게 다닐수 있는 반면에 단백질을 주입하지 않은 쥐는 뒤다리를 끄는 등 후유증이 뚜렷이 나타났다.

나토군병사 즉사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이 이 나라 항쟁세력의 무장공격으로 계속 녹아나고있다.

20일 남부지역에서 항쟁세력의 폭탄공격을 받아 3명의 나토군병사가 즉사하였다. 이로써 올해에 들어와 이 나라에서 죽은 나토군병사수는 44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ㄱ-41100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